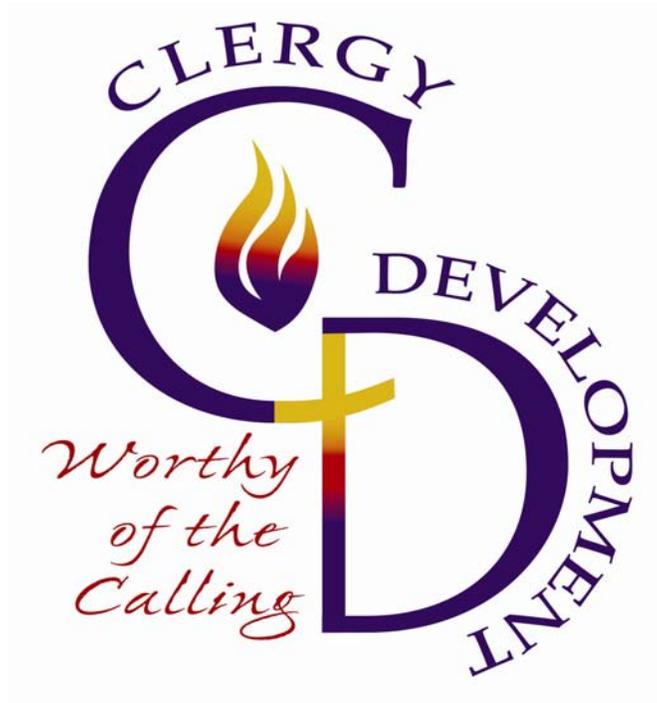

학생용 교재

성결한 사람이 되자



성직자 개발부
나사렛 교회
미조리주 캔사스 시
816-333-7000 교환 2468; 800-306-7651 (미국)
2004

Copyright ©2004 Nazarene Publishing House, Kansas City, MO USA. Created by Church of the Nazarene Clergy Development, Kansas City, MO USA. All rights reserv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Copyright 1973, 1978, 1984 by the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Publishing House. All rights reserved.

NASB: From the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copyright the Lockman Foundation 1960, 1962, 1963, 1968, 1971, 1972, 973, 1977, 1995. Used by permission.

NRSV: From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1989 by th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교육 제공자들에 주의 사항:

이것은 계약이다. 이 자료들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계약서의 모든 약정과 조건을 수락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모든 교육자료들을 포함한다.

이 계약을 당신이 수락한데 대해 성직자 개발부는 당신이 다음 사항들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 커리큘럼 자료들을 사용한 비전용의 허가증을 당신에게 허락한다:

1. 마출 사용.
 - 당신은 이 마출을 이메일 양식으로 학생들이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 당신은 각 사본이 이 계약과 동일한 판권과 이 마출에 속한 다른 특허 통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메일이나 용지 사본을 만들어 가르치는 목적을 위해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인터넷이나 유사한 온라인 자료로 부터 다운로드할 경우 당신은 어떤 온라인을 통한 배부나 당신이 배부하는 것으로 이 마출을 포함하는 어떤 미디어든 이 마출을 위한 성직자 개발부의 판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당신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을 할 목적으로 실례들과 교육자료들을 번역, 각색 및 /혹은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성직자 개발부의 명확한 서면 허가 없이는 이 변경된 자료들을 판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2. 판권. 이 마출은 성직자 개발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판권법과 국제 조약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상기된 것 외에는 이 계약이 당신에게 이 마출안에 있는 어떤 지적 소유권도 부여하지 않는다.
3. 제한.
 - 당신은 최소한의 재판을 위해 이메일이나 복사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 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마출의 사본들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사본들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 상업 용도를 위해 이 마출의 용어들이나 원래 의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4. 이 출판권은 미국의 판권법의 소유하에 있다.

성직자 개발부
나사렛 교회
6401 The Paseo
Kansas City, MO 64131
USA

마출 연구과정은 브레크리지 협의회가 정의한 교육 관점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에 기초한 커리큘럼이다. 성직자 개발부는 나사렛교회의 마출 연구과정을 유지 및 보급하는데 책임이 있다.

마출 연구과정을 위한 개발위원회 위원들

Michael W. Vail, 철학 박사. 커리큘럼 시리즈 편집인
Charles E. Zink, 성직자 개발부 부장
Jerry D. Lambert, 국제 교육위원회 위원장
Al Truesdale, 철학 박사, 나사렛 신학교 (은퇴 교수)
Robert L. Woodruff, 철학박사, 나사렛 세계선교 교육담당관
David Basic, Pastor, 샌츠틀 나사렛교회 담임 목사, 캔사스 주 레벡사 시
Ron Blake, Pastor, 디트로이트 제일 나사렛교회 담임목사.
Michael W. Stipp, 성직자 개발부

Series Foreword 알 튜스데일 저

Journaling Essay 릭 라이딩 저

Principal contributors . 교사용 교재에 구체적으로 수록됨

시리즈 권두언

기독교 사역에 대한 비전: 나사렛 교회의 성직자 교육

모든 사람-정말로 모든 피조물-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와 구원의 행위로 그 자신을 알렸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름과 방법을 구현시키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교회를 존재케 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 이야기는 주로 구약 및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사역해 내는데 즉 지금도 설교,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받은 교인들의 삶속에서, 구두 간증, 공동체의 삶, 그리고 선교를 통해 행해진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증인과 섬김의 사역을 시행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의 지혜에 비추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안수 받은 사역이라고 언급되는 형태로 이행하게 하신다. 이 부름에서 하나님이 착수의 행위자이지 인간이 아니다. 나사렛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으로 믿는다. 그들은 기독교 사역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안수받은 사역으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감격해야 한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해야 한다. 나사렛 교회 장정은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다 직무적이고 공적인 사역을 위해 부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수한다" 고 진술한다. 그것은 "교회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 주의 부르심을 알게 된다"고 덧붙인다 (나사렛 교회 장정, 제 400 조항).

안수받은 기독교 교역자는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된 하나님의 온전한 이야기를 많은 방법으로 선포하는 것을 그[녀]의 최고 책임으로 갖고 있다. 그의 혹은 그녀의 책임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벧전 5:2-3). 교역자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감독하에 이 책임을 수행한다 (벧전 5:4). 그러한 사역은 신중환 준비 기간후에야만 성취될 수 있다. 정말로 항상 변하는 요구가 교역자에게 두어지는 이상 "준비"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기독교 사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청지기가 된다 (딤후 1:7).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돌보는 것이 맡겨진 자이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일 것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이다. 그러나 그 외에 특유한 의미에서 기독교 교역자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메시아인 "하나님의 신비의 청지기"이다. 교역자는 충성을 다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엡 6:19). 바울과 같이 그[녀]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 (엡 3:8-10)을 충실히 전파해야 한다.

이 명령을 성취하는데 부지런함과 일각의 여지는 충분히 많지만 게으름이나 특권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 (딤후 1:5-9). 선한 청지기들은 그들이 오로지 청지기들이지 소유자들이 아닌 것과 주인에게

그들의 청지기직을 책임져야 할 것을 인정한다. 사람의 책임과 책임을 맡긴 주께 충성하는 것은 청지기의 주요한 열정이다. 적절히 이해될 때 기독교 사역은 결코 “직업”으로 생각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역 곧 유일한 기독교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나 기쁨이 없다. 안수받은 사역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도들의 무리와, 초대교회 교부들, 중세기의 개혁가들, 개신교 개혁가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청지기들로 기쁘게 섬기는 세계 전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분명 단순히 사역자의 청지기 직이 얼마나 완벽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는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는 하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안수받는 것으로 인도하는 길을 밟는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유한 의미로 기독교 사역자는 모든 점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돈에 대한 사랑을 “멀리” 해야 한다. 대신 사역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야” 한다. 그[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딤후 6:11-12).

그래서 나사렛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지 아니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함이라” (딤후 1:7-9).

다른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사람은 안수 받기 전후에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자신을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그[녀]가 억지로 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곧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불가피한 책임감에서 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사역을 준비하는데 취하는 태도는 그[녀]가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많이 나타낸다는 것은 너무 강력한 강조라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성육신하시고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기독교 사역자는 같은 방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맡겨진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청지기들에 대해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다 (마 21:33-33; 25:14-30; 막 13:34-37; 눅 12:35-40; 19:11-27; 20:9-18).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사역 준비-그것의 모든 차원에서의 교육-는 하나님과 그 사역이 미치는 그의 백성들 앞에서의 완전한 책임에 비추어 추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그[녀]의 재량에 따라 그의 가장 좋은 교육자료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나사렛 교회는 안수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연관된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 들인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법의 일부는 안수 및 사역의 실천을 위해 우리가 내세운 요구조건들에서 보여진다. 우리는 기독교 사역의 소명과 실천이 은사이지 권리나 특권이 아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최고의 종교적, 도덕적, 인격적, 그리고 전문적 표준에 등을 믿는다. 우리는 그러한 표준들이 사람이 소명받은 때 부터

그의 혹은 그녀의 죽을 때까지 지켜질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는 기독교 사역이 먼저 예배 형태가 되어야 함을 믿는다. 사역의 실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 둘 다이다. 은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롬 12:1-3). 사역을 위한 사람의 교육도 역시 예배의 형태이다.

사람을 안수 후보자로 인도할 학과 과정을 이루는 마줄은 우리가 기술해온 종류의 사역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 신중을 기해 디자인 했다. 그것들의 공통된 목적은 안수받은 기독교 사역에 들어가는데 온전한 준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지혜, 체험, 그리고 책임을 반영해 준다. 그 마줄들은 나사렛교회가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친 세상, 그리고 기독교 사역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여 준다. 마줄들을 완전히 마치는데는 3년 혹은 4년 걸린다. 그런 아무도 이 스케줄에 맞추는데 억압감을 느껴서는 안된다.

이 마줄들이 요구하는 신중한 연구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교회 앞에서 안수받는 사역과 관련된 청지기 책임을 받아 들이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감사

모든 마줄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집성이다. 어떤 분은 원래의 원고를 쓰고, 다른 분들은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들을 내놓고 자료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고 마지막으로 편집인은 마줄을 출판 체제로 만든다. 이 마줄도 다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줄에 기여했다. 주요 기여자들의 원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 온갖 노력이 들었다.

주요 기여자

이 마줄을 위한 주요 기여자는 다이엔 렉러 박사이다. 렉러 박사는 노쓰 웨스트 나사렛대학에서 역사신학과 설교학 교수인데 그녀는 그곳에서 1998년부터 가르쳐 왔다. 그녀는 나사렛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인데 이스턴 나사렛대학에서 종교학사 학위, 나사렛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 그리고 드류대학에서 철학석사 및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웨슬레 신학 잡지에 기사들을 출간했고 *감리교 전통 및 관계운동의 핵심 종교*를 포함하여 두 서적에 기여하였다. 그녀의 장편 서적 단일한 마음: *역사적 관점에서의 성과 죄와 성결*은 웨슬레 신학회의 2002년도 우수상을 받았다. 렉러는 웨슬레 신학회와 웨슬레 성결 여자 성직자 협회회의 정회원이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이다오주 남파에 산다.

응수자

각 마줄은 그 내용이 단독의 편협적인 관점이나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 적어도 한 명의 내용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었다. 응수자는 주요 기여자가 이 마줄에 통합시킬 수 있는 제안들을 내 놓았다.

존 나이트 박사는 이 마줄을 위한 응수자였다. 나이트 박사는 나사렛교회의 은퇴 중앙감독이다. 1985년에 교단에서 최고 직위를 맡기 전에 그는 베다니 나사렛대학 (현재 써던 나사렛대학) 과 마운트 버논 나사렛대학 (현재 종합대학) 학장과 *성결의 소리* (지금은 *오늘의 성결*) 편집인으로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 및 교수로 특출하게 섬겼다. 그는 교회를 위해 여러 서적 및 기사들을 썼다.

내용

페이지

시리즈 권두언	3
감사	6
강의 요목	8
단원 1: 예비 문제	20
단원 2: 신학 기초들	24
단원 3: 구약성경 기초들	30
단원 4: 신약성경 기초들	43
단원 5: 전통: 웨슬레 이전 기초들	48
단원 6: 전통: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52
단원 7: 전통: 성결 운동	57
단원 8: 합리론: 완전성결의 본질	63
단원 9: 체험: 완전성결의 구조	68
단원 10: 체험: 목적에 이르는 수단	72
단원 11: 체험: 성결 윤리	76
단원 12: 제 21 세기를 위한 성결	80
각주	82

강의 요목 성결한 사람이 되자

교육 기관, 환경, 혹은 교육 공급처:

학과목 위치:

학과목 날짜:

강사 이름:

강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마줄 비전성명서:

나사렛교회는 그 자체를 "성결"교단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두 현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뿌리는 19 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성결 운동"으로 알려진 전통으로 부터 자라 나왔다. 우리는 친히 같은 전통에서 태어난 교단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성결은 우리의 역사적 정체에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성결"의 역사적 배경은 또한 결과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한데 묶는 "성결" 신학을 필히 암시한다. 그 운동의 교단들과 다른 협회들은 모두가 "성결 교리"에 대한 특별 이해를 주장해 왔는데- 그리고 주장하는데-그것은 또한 "성결 신학"으로 판명될 수 있다. "성결"이란 바로 그 말은 이 두 현실 곧 "성결 운동"과 "성결 교리"를 줄인 말이 되었다.

이 성결교리의 뿌리는 특별히 동부의 초대 교회 저자들 곧 헬라에서 쓴 그 교부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교리의 측면들은 중세기, 종교 개혁, 영국 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발전된 성결교리를 분명하게 한 사람이었다; 그의 역사적 배치 뿐만 아니고 그의 신학적 비전은 감리교단을 형성하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1784 년에 설립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웨슬레 신학이 19 세기의 문화, 종교적, 역사적 문맥에 맞추었을 때, 신학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났다.

과거 몇 십년 동안 논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여기 우리의 탐구의 바로 시작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19 세기의 변화를 웨슬레의 거대한 향상으로서 찬양되고 굳게 고수해야 한다고 보는 설교가들이 있어 왔다.

정 반대편에는 그 변화를 신학적 재난으로 보고 18 세기 웨슬레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있다. 또 가끔 논쟁 자체의 절대 중요한 문제들과 해석 그리고 궁극적 독특성들을 혼돈하고서 의심할 여지없이 중간 어느곳에 서 있는 다른 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있다. 논쟁의 측면들은 그것들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이름들과 연관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들에 있어 논쟁은 열렬히 행해졌다. 맨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사렛교회의 뿌리가 둘 다의 원천 곧 웨슬레안과 성결에서 부터 자라남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웨슬레안-성결 교단이다.

이 두 원천들에 적절한 주의를 기하는 것이 이 저자의 시도일 것이다. 두 원천들로 부터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외에 오늘 날 교단을 위해 또 다른 아주 중대한 의제가 있는데 곧 21 세기를 위해 성결 신학을 어떻게 가장 잘 규명하느냐 하는 것이 그녀의 의견이다. “웨슬레로 돌아 가자”는 외침과 “성결 부흥으로 돌아 가자”는 외침을 둘 다 미래를 향해 방향을 고쳐야 한다.

오늘을 배경으로 성결신학의 또 다른 절대 중요한 면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규명되어야 한다. 다음에 오는 레슨들에 나오고 숙고되어질 여러 이유들 때문에 성결신학, 특별히 완전 성결교리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에서 그 강조점을 잃어가고 있다. 일반적인 무관심이거나 아니면 명확한 핵심 요소들에 대해 너무 혼동하므로 그 건설적이고 명백하며 건설하고, 현실적이며 하나님 중심의 교리의 확언을 점점 더 찾아 보기 어렵다. 만일 이 교리가 우리 교단의 명백한 “독특성”이라면, 그것이 너무 강력하여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어찌면 조금이라도 전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리를 다시 주장하고 다시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참 길은 우리의 성직자의 준비와 교육을 통해서이다. 저자는 위에 규명된 대로 그녀가 현재의 “위기”로 믿는 것에 비추어 이 과제에 친히 헌신하였다. 이 구체적인 마줄이 지금 성결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아주 중대한 준비과정의 방편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바라마지 않는다.

이 마줄의 조직은 기초가 되는 후원 곧 웨슬레의 4 변형의 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수위를 고수하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웨슬레는 성경이 동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성경은 전통 곧 어떤 신뢰성을 요구하는 해석의 역사에 의해 해석되어 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체험과 성격상 동력적이고 상호적인 기독교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은 이성의 도움을 통해 이해되고 정정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마줄의 레슨들은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의 관점에서 성결신학을 고찰할 것이다. 그것은 “성결 윤리”의 영역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관련해서 성결신학과 완전성결교리의 정립을 위한 몇가지 추천안을 내놓을 것이다. 나사렛교회에서 안수받고 사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웨슬레-성결신학의 관점, 특별히 그것의 성결교리를 표명함에 있어서 그 패기를 포착, 고수,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마줄은 우리 교단의 미래의 정체를 확고히 염두에 두고 디자인 되었다.

마줄 추천

학생들은 이 마줄에 등록하기 전에 *요한 웨슬레 신학탐구* 마줄을 이수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교육의 전제

1. 성령의 역사는 어떤 수준의 어떤 기독교 교육 과정에도 본질적이다. 우리는 시종일관 우리안에 및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요구하고 기대한다.
2. 기독교 교육과 학습은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는) 와의 관계속에 가장 잘 실행된다. 공동체는 성령의 선물이지만 인간의 노력에 의해 강화되거나 방해된다. 공동체는 공통된 가치관; 이야기, 관례, 그리고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클래스 내에서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노골적으로 투자된 것이다. 매 단원에서 그룹 작업이 있을 것이다.
3. 매 성인 학생은 클래스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체험들을 갖고 있다.
4. 일지를 쓰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체험들과 우선들과 아이디어들로 단원들의 원칙들과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론과 실천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결과 성명서들

이 마줄은 *미국 사역개발 원전*에 정의된 대로 다음의 능력들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

프로그램 결과들

- CN 22 웨슬레 신학의 독특한 특징들을 명백히 할 수 있는 능력
- CN 23 웨슬레 신학의 독특한 특징들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CN 27 미국 성결운동과 나사렛교회를 형성하는 영향을 알아 낼 수 있는 능력
- CP 10 분별, 평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 분석,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애매모호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CP 11 논쟁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전제들과 결과들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
- CP 21 전후 문맥이 흐르고 신학에 근거한 예배를 계획하고 명령하고, 참여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결과 성명서들

- 교리를 이해하고 판명하는데 유해가 되어 올 뿐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체험 못하게 하는 성결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인정한다.
- 성결을 웨슬레 신학 전체, 곧 구체적으로 폭 넓게 정의된 신학적 인류학, 죄론 그리고 구원론과 관련시킨다.
- 성결교리를 위한 구약성경의 기초들을 알아내고 판명한다.
- 웨슬레 성결의 선구자들과 운동에 대해 친숙해 진다.
- 요한 웨슬레의 성결신학을 이해한다.
- 성결에 대한 웨슬레와 19 세기의 판명을 비교 및 대조한다.
- 전통적 및 혁신적 언어로 성결 신학과 완전 성결교리를 판명한다.
- 성결의 과정과 위기를 구별한다.
- 성결 여정의 중대한 이정표를 알아 낸다.
- 성결이 웨슬레의 “은혜의 수단”의 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한다.
- “성결윤리”의 기초들을 판명한다.

- 성결신학의 본질-그것이 무엇인가-및 상황/구조-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판명한다.
- 학생들에게 성결에 관한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성결체험을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독서 추천

여러분 개인의 도서 증강:

여러분 개인/전문 도서를 증강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주요 기여자는 다음의 서적들을 추천한다. (완전한 참고 문헌 인용들은 15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참고 도서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Wynkoop, *A Theology of Love*
 Lindstrom, *Wesley and Sanctification*
 Knight, *All Loves Excelling*
 Greathouse, *Wholeness in Christ*
 Lawrence Wood, *Pentecostal Grace*
 Dunning, *A Layman's Guide to Sanctification*
 Bassett/Greathouse,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2.*

숙제 완성을 위한 자료 입수:

과제물들-레슨 5 와 6-중 하나는 포베 파머가 쓴 *성결의 길*을 읽는 것이다. 레슨 5 전에 학생들로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본들은 대부분의 도서관들-공립학교, 대학, 연회, 그리고 교회-들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도서를 위해 사본을 구입하기를 원할수도 있다. 책들은 아마존 및 웨슬레 서적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한 제목으로 씨디에 들어 있는데 웨슬레 센터 온라인 (<http://wesley.nnu.edu>)를 통해 2000 부 이상의 그런 교재들과 함께 구입할 수 있다.

포멜라 파머가 쓴 *성결의 길*도 역시 온라인

<http://wesley.nnu.edu/wesleyctr/books;indices/index-p-authors.htm>.

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편집자는 두에인 멕시 목사의 면밀 조사하여 편집된 문서를 만들어 내고 웨슬레 센터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싶다.

또 다른 과제-레슨 4 와 5-는 요한 웨슬레의 단편인 "그리스도인 완전의 명백한 기사"를 읽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웨슬레 센터 웹사이트(<http://wesley.nnu.edu>)를 통해서와 웨슬레 센터 CD 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학과 요구사항

1. **클래스 출석, 집중 그리고 참여**는 특별히 중요하다. 학생들은 모든 과제물과 클래스 내의 학업에 책임이 있다. 이 학과목의 많은 활동이 소그룹 활동이다. 협력하는 소그룹 활동은 꾸며질 수 없다. 그것은 출석을 절대 필요하게 한다. 비록 읽고 쓰는 것을 과외로 더 한다 할지라도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배우는 가치는 방해받게 된다. 만일 한 단원을 빠지면 교사는 완성이 인정될 수 있기 전에 과외의 숙제를 요구할 것이다. 두 클래스 이상을 빠지면 학생은 마졸 전부를 다시 해야 한다.

소그룹 활동. 이 학과목에서 소그룹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클래스 일원들은 각 2-4 명 학생의 그룹으로 배정될 것이다. 그룹 일원들은 탐구 및 토론을 위한 연구 파트너들로 활약할 것이다.

2. 과제물들

일지: 이 마줄을 위한 연속 이어지는 유일한 과제물은 여러분의 일지이다. 그것은 매일 아니면 정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학기 중 교사는 적어도 한 번 일지를 점검할 것이다. 일지 과제물은 각 단원에 포함되어 있다.

일지는 학생들의 친구가 되고 통찰력과 헌신과 아이디어들의 금고가 된다. 여기에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일지의 본질인 영적 삶은 여러분이 거듭 배운 원칙들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여러분 자신의 사역 상황에 적용하도록 사용됨으로서 학과목이 단지 학구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지는 일기도 아니고 잡담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육 체험과 그것의 의미들을 택하여 음미해보고 기록하는 안내의 일지 혹은 초점의 일지이다.

이 커리큘럼의 뼈대를 만든 사람들은 성경과 영적 원칙들을 알고 그것들을 받아들여 자기것으로 하는 학습보다는 성경에 “대하여” 혹은 영적 생활에 “대하여” 배우는 것에 빠지는 길을 염려하였다. 일지를 쓰는 체험은 “됨과, 앎과, 행함”가운데 “됨”의 구성요소는 학과 과정 중에 함께 함을 확실하게 해준다. 모든 일지쓰는 과제물에 충실하게 되기를 바란다.

매일 과제: 이 마줄 수업에는 정기적 숙제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매일의 과제라 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클래스는 겨우 일주일에 한번 모인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매일” 마줄을 공부해야 한다. 가끔 숙제물은 양이 꽤 많다. 과제물은 중요하다. 비록 숙제물이 매 클래스 수업시간에 토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제물은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교사에게 학생의 학과 진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준다. 숙제물을 제출해야 할 정상적인 때는 매 클래스 수업시간이 시작될 때다. **모든** 과제물은 완성되어야 한다.

과목 개요 및 스케줄

클래스는 다음의 스케줄에 따라 18 시간 모인다:

수업 일자	수업 시간
	1. 예비 문제
	2. 신학 기초들
	3. 구약성경 기초들
	4. 신약성경 기초들
	5. 전통: 웨슬레 이전 기초들
	6. 전통: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7. 전통: 성결 운동
	8. 합리론: 완전 성결의 본질
	9. 체험: 완전 성결의 구조
	10. 체험: 목적에 이르는 수단
	11. 체험: 성결 윤리
	12. 제 21 세기를 위한 성결

과목 평가

교사와 과목 그 자체와 학생의 진보가 평가된다. 이 평가들은 몇가지 방법으로 시행될 것이다.

학생의 진보는 배움의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 눈여겨 평가될 것이다 :

1. 주의 깊게 소그룹 활동을 관찰하고, 보고의 능력, 토론의 균형, 관계의 질, 협력 수준, 그리고 배당된 과제의 성취들을 주목한다.
2. 주의깊게 숙제물을 읽는다.
3. 모든 숙제물의 완성
4. 일지 기록 검토

과목 자료들과 교사는 어떤 방법, 체험, 이야기, 강의, 혹은 다른 활동들의 효율성과 적격성에 대해 종종 묻고 토론함으로써 평가될 것이다.

어떤 평가는 클래스 그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떤 목표들은 다가오는 해들 동안에 측정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학생들이 그전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경지의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대하고 경건을 쌓는 기술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훈계와 더불어 실천에 옮기고 이 과목의 가장 훌륭한 점을 그들 자신의 사역에 합친다면, 이 교육의 수고의 열매는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안내

매 학생을 도우는데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핸디캡이나 학습 불능 혹은 클래스 요구사항을 성취하는데 아주 어렵게 하는 다른 조건들을 갖고 있는 학생은 특별 조정이 있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교사와 만날 시간을 정해야 한다.

교사의 유용성

교실내외에서 학생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신실된 노력을 기울인다.

일지 기록: 개인적 흥미와 종합의 도구

학과 과정에 참여는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준비에 심장이다. 각 학과를 이수하기 위해 여러분은 강의를 듣고 몇권의 책을 읽고 토론에 참여하고, 글을 쓰고 시험을 쳐야 한다.

사역준비에 동등하게 중요한 부분은 영성이다. 어떤 분들은 영성을 경건의 헌신이라 부르고자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것을 은혜 안에 성장으로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 과정에 어떤 명칭을 여러분이 붙이든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학과 수업은 사역을 하기 위한 당신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더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적

형성작업은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을 엮어서 여러분 존재의 직물을 만들어 여러분의 교육이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들에게로 자유로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영적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일지 기록은 그것들을 모두 함께 묶는 중대한 기술이다. 일지 기록은 단순히 여러분의 체험들과 여러분이 그동안 얻은 통찰력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다. 그것이 단련인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일지에 매일 충실히 시간을 들이는데 상당한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다른 많은 책임들이 억누를 때 옆으로 제쳐두려는 경향이 있는 실천임을 고백한다. 하루에 일지 기록에 소모하는 단 5 분도 여러분의 교육과 여러분의 영적 계발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일지 기록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와 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라. 일지의 페이지들에 여러분은 그날의 사건들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과 여러분이 클래스에서 얻은 통찰력들과 책에서 수집한 인용들과 두 아이디어가 연결되어 여러분에게 와 닿은 영감들을 쏟아 부어. 이것은 일기를 쓰는 것과 다른데, 일기는 개인의 대화가 없는 사건들의 기록인 것 같기 때문이다. 일지는 여러분의 모든 사고, 반응, 기도, 통찰력, 비전, 그리고 계획들의 저장이다. 어떤 분들은 각 형태의 반영을 위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복잡한 일지를 기록하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단순한 실황 해설이 보다 더 도움이 됨을 발견한다. 어느 경우든 매 일지의 기입 시작에 날자와 장소를 기록하라.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를 재고해 볼 때가 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지 기록의 논리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러분이 시작한 모든 것은 시작하기 위한 펜과 종이다. 어떤 분들은 세계의 고리가 있는 바인더에 철할 제본된 노트북을 좋아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작문용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즐긴다. 어떤 스타일의 노트북을 선택하든 여러분에게 맞는 패턴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러분의 일지를 쓰는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본질적이다. 일지를 인상지게 하는 장소가 없다면 일지를 정기적으로 씌우로서의 그 가치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본다. 하루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것에서 가려낼 수 있는 후에 일지 기록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다. 허나 가족들과의 시간, 저녁 활동들, 그리고 피로가 이 시간의 짬에 영향을 미친다. 아침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한다. 수면은 그 전날의 체험들에서 많은 것을 걸러내고 깊은 통찰력들을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아침에 기록될 일이다. 경건의 시간들과 관련하여 일지 기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체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여러분의 미루는 생각에 흠뻑 젖어드는 학과 자료들과 함께 짜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일지를 갖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루 동안에 이따금 여러분에게 와 닿는 아이디어들을 적어둘 수 있게 할 것이다.

일지 기록은 손으로 쓰는 연습임을 우리가 재의해 온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컴퓨터로 그들의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손과 펜과 종이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보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미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연성이 있고 휴대할 수 있으며 유용성이 있다.

정기적으로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일지는 여러분의 여정의 창고이다. 매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작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말에 각 주간의 기록을 숙독하라. 요약해서 진술해 보고 성령의 운동이나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주목해 보라. 매 30 일 마다. 여러분의 일지에 대한 월 검토를 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홀로 고요속에 여러분이 사고하면서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는 반 나절의 수양을 통해 가장 잘 행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은 말씀의 축적된 가치와 여러분의 일지에 대한 월 검토를 하라.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말씀의 축적된 가치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사역의 체험이 모두 함께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방법들로 움직임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을 학습과 함께 짜는 통합이다.

통합은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정보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옮기므로 사역이 행함이라기 보다는
되어감의 일이다. 일지 기록은 교육의 중심이 되는 질문에 답변하는데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
내가 그것을 행할 때에 언제 하며 왜 하는가?"

일지 기록은 정말로 사역준비의 린치핀이다. 여러분의 일지는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내용 통달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들은 여러분의 교육을 한 데 모으는 풍부한
통찰력들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일지는 통합을 위한 도구이다. 일지 기록과정을 귀중히
여길지어다!

참고 서적

Bassett, Paul M. "Culture and Concupiscence: The Changing Definition of Sanctity in
the Wesleyan Holiness Movement, 1867-1920."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8
(1993).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26-30/28-4.htm

_____, ed. *Great Holiness Classics*. Vol. 1, *Holiness Teaching: New Testament
Times to Wesle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7.

_____, and William M. Greathouse.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2, *The
Historical Development*.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5.

Brown, Raymond E. *The Epistles of John*. In *The Anchor Bible*. Edited by William F.
Albright and David M. Freedman. Garden City, NY: Doubleday and Company,
1982.

Callen, Barry L., and Richard P. Thompson, eds. *Reading the Bible in Wesleyan Way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2004.

Carver, Frank G. "Biblical Foundations for the 'Secondness' of Entire Sanctifica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2 (Fall 1987).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21-25/22-10.htm

Cell, George Croft.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New York: H. Holt and Company,
1935.

Clarke, Adam. *Clarke's Commentary*. Nashville: Abingdon Press, n.d.

Coppedge, Allan. "Entire Sanctification in Early American Methodism: 1812-1835."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3 (Spring 1978).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1-15/13-3.html

Dayton, Donald W. "Asa Mahan and the Development of American Holiness Theolog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9 (Spring 1974).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06-10/09-7.htm

_____.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New York: Harper & Row, 1976.

- Deasley, Alex. "[Entire Sanctification and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Perspectives on the Biblical View of the Relationship.](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1-15/14-03.ht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4 (Spring 1979).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1-15/14-03.htm
- Dieter, Melvin E. "The Development of Holiness Theolog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0 (Spring 1985).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6-20/20-05.htm
- _____. *Five Views on Sanctification*.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87.
- _____. *The Holiness Revival of the Nineteenth Century*.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80.
- Dunning, H. Ray. *Grace, Faith, and Holiness: A Wesleyan Systematic Theolog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8.
- _____. *A Layman's Guide to Sanctifica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1.
- _____, and Neil B. Wiseman, eds. *Biblical Resources for Holiness Preaching: from Text to Sermon, Vol. 2*,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0-1993.
- Greathouse, William M. *From the Apostles to Wesley: Christian Perfec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79.
- _____. *Wholeness in Christ: Toward a Biblical Theology of Holines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8.
- Grider, J. Kenneth. *Entire Sanctification: The Distinctive Doctrine of Wesleyanism*.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0.
- Jackman, David. *The Message of John's Letters*. In *The Bible Speaks Today*. Edited by John R. W. Stot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8.
- Knight, John A. *All Loves Excelling: Proclaiming Our Wesleyan Message*.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5.
- LeClerc, Diane. *Singleness of Heart: Gender, Sin, and Holi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Metuchen, NJ: Scarecrow Press, 2001.
- Lennox, Stephen J. "[Biblical Interpretation, American Holiness Movement, 1875-1920.](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31-35/33-1-02.ht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3 (Spring 1998).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31-35/33-1-02.htm
- Lindstrom, Harald. *Wesley and Sanctification: A Study in the Doctrine of Salvation*. Wilmore, KY: Francis Asbury Publishing Company, 1981.

- Lovell, Ora D. "The Present Possession of Perfection as Presented in First Joh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8 (Spring 1973).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06-10/08-4.htm
- Maddox, Randy. "Holiness of Heart and Life: Lessons from North American Methodism." *Asbury Theological Journal* 51 (1996): 65-93, 141-56.
- _____. "Reconnecting the Means to the End: A Wesleyan Prescription for the Holiness Movement."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3 (1998).
- _____.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Kingswood Books, 1994.
- Marshall, I. Howard. *The Epistles of John*. In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Edited by F. F. Bruc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 Massey, James Earl. "[Race Relations and the American Holiness Movement](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31-35/31-1-02.ht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1 (Spring 1996).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31-35/31-1-02.htm
- Mattke, Robert A.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s Related to the Work of Entire Sanctifica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5 (Spring 1970).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01-05/05-3.htm
- Oswalt, John N. "Wesley'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His Doctrinal Teaching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2 (Spring 1977).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1-15/12-5.htm
- Palmer, Earl F. *1, 2, 3 John, Revelation*. In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Edited by Lloyd J. Ogilvie. Waco, TX: Word Books, 1982.
- Powell, Sam, and Michael Lodahl. *Embodied Holiness: Toward a Corporate Theology of Spiritual Growt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 Purkiser, W. T.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1, *The Biblical Foundation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3.
- Reasoner, Victor P. "The American Holiness Movement's Paradigm Shift Concerning Pentecost."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1 (Fall 1996).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31-35/31-2-7.htm
- Shelton, R. Larry. "A Wesleyan/Holiness Agend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3 (Fall 1998). (Not online as of February 2004; coming soon).
- Smalley, Stephen S. *1, 2, 3 John*. In *Word Biblical Commentary*. Edited by David A. Hubbard and Glenn W. Barker. Waco, TX: Word Books, 1984.

Staples, Rob L. *Outward Sign and Inward Grace*.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1.

_____. "Sanctification and Selfhood: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Wesleyan Message."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7 (Spring 1972).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06-10/07-1.htm

Strong, Douglas M. "Sanctified Eccentricity: Continuing Relevance of the Nineteenth-Century Holiness Paradig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5 (2000).

Tracy, Wesley D. "The Cleansing Blood of Jesus." In *Biblical Resources for Holiness Preaching: From Text to Sermon, Vol. 2*. Edited by H. Ray Dunning and Neil B. Wisema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0-1993, 259-71.

_____, E. Dee Freeborn, Janine Tartaglia, and Morris A. Weigelt. *The Upward Call*.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4.

Turner, George Alle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n the Wesleyan Tradi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4 (Spring 1979).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1-15/14-05.htm

_____. *The Vision Which Transforms: Is Christian Perfection Scriptural?*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4.

Wesley, John. *Explanatory Notes on the New Testament*.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1.

_____. "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III in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London: Wesleyan Methodist Book Room, n.d.

_____.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Works of John Wesley*. Third edi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78.

_____. *The Works of John Wesley* (Reprinted from the 1872 Jackson edi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6.

Westcott, Brooke Foss. *The Epistles of Joh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Williams, R. R. *The Letters of John and James*. In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Edited by P. R. Ackroyd, A. R. C. Leany, and J. W. Pack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Willimon, William H. *The Service of God: Christian Work and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Wood, Laurence W. *Pentecostal Grace: A Theology of Christian Experience*. Wilmore, KY: F. Asbury Publishing Company, 1980.

Wright, John W. "Toward a Holiness Hermeneutic: The Old Testament Against Israelite Relig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1 (Spring 1996).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26-30/30-2-04.htm

Wynkoop, Mildred Bangs. *A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7.

단원 1: 예비 문제들

이 단원의 과제

없음

학습자 목표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성결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판명한다.
- 나사렛 유산의 복잡성을 인식한다.
- 성결신학의 일부 중요한 문제들을 알아 낸다.
- 거룩과 성결의 차이성을 안다.

숙제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죄에 대해 신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 3 페이지의 수필을 쓰라.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이 과제는 계속된다. 클래스에서 제공한 자료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그리고 통찰력들을 포함하라. 학과 전체를 통해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사상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승리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개념들

거짓: 완전성결은 기독교 삶의 목적지이다.

세가지의 위험스런 암시가 있다:

- 그것은 완전성결의 체험이 크리스찬 성장의 끝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 체험의 꼭대기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을 암시한다.
- 우리는 결코 우리가 *체/험*을 구하고 있다고 암시해서는 안된다.

거짓: 완전성결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가져가 버린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가져가 버릴 것은 그 어느 때도 없을 것이다.

거짓: 우리가 완전히 성결되기 전에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다.

로마서 8 장: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전에 알기 *전*에도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은 우리의 삶속에 활동적이셨다.

잘못된 개념들

거짓: 완전히 성결되지 못한 자들은 죄인들이고 제 2 급의 시민들이다.

우리의 역사상 신생의 체험이 덜 강조되어 위험한 경지에 빠질 정도로 성결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들이 있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인이다.

거짓: 완전히 성결된 자들만 하늘에 간다.

이 엉뚱한 잘못된 개념은 거룩을 완전성결로 와해시킨 잘못에서 자라 나온다; 거룩은 훨씬 더 광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거짓: 율법주의적 자기 의는 거룩이 보여지는 것과 흡사하다.

만일 거룩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저락된다면 율법주의가 속히 따를 것이다;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거짓: 무죄가 성결된 삶의 목표이다.

만일 우리가 거룩을 어떤 것, 즉 죄의 부재의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 삶의 핵심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다. 거룩은 어떤 것 곧 사랑의 현존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거룩에 대한 웨슬레의 정의이다.

잘못된 개념들

거짓: 완전히 성결된 자는 시험에 당하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우리와 꼭 같이 모든 면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밝히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날 때 부터 죄가 없었고 모든 면에 거룩하셨는
데도 그는 친히 시험을 당하셨음을 믿는다.

거짓: 거룩과 완전성결은 동의어이다.

신학적 전문 표현으로 거룩과 성결은 사람이 거듭날 때 시작된다.
그 때 하나님은 마음속에 **초기** 성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 다음
사람은 은혜안에 자라고 거룩과 성결안에 **진보**해 간다. 나중에
사람은 **완전** 성결이라 불리우는 것을 체험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진보적** 성결은 그 순간부터 또한 영화로 알려진
우리의 **최종** 성결 때까지 곧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동안 성결의 모든 단계를 가능하게 한다.

거짓: 성결된 삶의 기대들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웨슬레 사람들로써 크리스찬 삶이 죄와 실패의 영원한
순환으로 운명지어져 죄의 힘이 은혜의 능력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멧세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데 신실하시다.

단원 2: 신학 기초들

이 단원의 과제

수필
일지 기록

학습자 목표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신학적 인간론을 성결교리와 관련시키고
- 하나님의 형상에 미치는 성결의 영향을 설명하고
- 인간 성품과 죄의 성품을 구별하고
- 죄론을 성결 교리와 관련시켜야 한다.

숙제물

다음의 구약 본문을 읽고 여러분에게 주석이 이용 가능하면 주석책들을 참고하라:
창 3; 레 17:1- 26:46, 특별히 19:18, 20:7; 신 6:4-5; 10:16; 30:6; 시 15, 29, 37,
51, 93, 110; 사 6; 겔 36: 23-27; 속 13:1 읽으면서 마음에 떠 오르는 가능한
질문들이나 아이디어들을 쓰라. 토론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라.

상기 구약본문들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설교 개요를 만들라.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사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성결을 구한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대로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성

인간들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또한 신학적 인간론으로 알려진 것-에 기초가 된 것은 인간은 관계적이라는것이다. 그들은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웨슬레의 해석가들은 하나님의 형상 - *imago Dei* - 에 대한 바로 그 정의가 이 사랑할 수 있는 역량임을 강조해 왔다.

다른 이해들:

- 형상에 대한 서양 해석가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 (토마스 아퀴나스).
-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 형상은 인간 자유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과 세상을 적절히 사랑하도록 창조함 받았다.

인간에 대한 웨슬레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타락 후에도 형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심각하게 찌그러졌지만 말살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웨슬레에게 구원은 -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성결을 포함하여- 우리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및 갱신의 과정이다

개인 죄

요한 칼빈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거나 과녁을 빗나가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우리는 매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를 짓는다고 주장한다.

웨슬레에게 죄는 하나님의 알고 있는 법에 대한 의지적 위범이다. 환언하면 죄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에 거스리는 의식적인 반항의 행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필요는 더 깊어만 가는데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완전한 의존을 고백하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자명한 법을 깨트리거나 심지어 선한 행위를 생략하는 문제는 우리가 은혜안에 성장하면서 점점 더 적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성결을 추구한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다. 웨슬레가 진술한 대로 사랑은 죄를 배척한다.

원죄

웨슬레: *우상숭배*는 명확하게 그 밑에 열거되는 “교만”, “완고”, 그리고 “세상 사랑”과 더불어 원죄의 근본적 정의로 분류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두가지 형태의 원죄가 있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사랑 (교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인데, 여기서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적 우상숭배”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특유한 사랑으로 친척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크리스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도록 만드신 특별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들을 “열렬히 사랑하라” 고 우리는 명령받았다. 허나 역시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힘과 애정의 온유함을 유지하되 영혼에 흠점이 없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가능함을 안다. 나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어떤 욕망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순수한 애정을 가질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거기에 우상숭배는 없는가? 그것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지 않는가?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하나님이 한데 결합시킨 자들에 의해서도 신중하고려되도록 하자. 남편들과 아내들,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에 의해서 말이다. 이들이 포근하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우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도, 허락도 받지 않았다. 허나 얼마나 이 일이 흔한가! 얼마나 자주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지는가! 얼마나 많은 좋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사랑을 서로에게 고착시키는가!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피조물에서 찾지 창조주에게서가 아니다. 한 사람이 다른 분에게 나는 당신을 나의 원하는 주요 목표로 바라본다고 참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는 당신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요! 당신은 내가 그리워 하는 것이요! 나의 모든 바램은 당신에게 있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함에 있어요!”

이제 위의 것들이 노골적인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원죄

원죄는 또한 미국에서 성결신학이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화제였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인간의 전 존재로 -경쟁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성결, 사랑에 대한 웨슬레 자신의 우선적 정의는 자기에 대한 전통적 이상숭배를 뒤엎음을 통해서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상숭배를 뒤엎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웨슬레와 성결운동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행한 것은 남은 인간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쳤음을 강력히 믿었다. 서양신학은 원죄 상태에 있는 것 곧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의 부패는 비록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무것도 개인적 및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앞에 유죄하게 만든다고 논한다. 부패뿐만 아니라 유죄도 물려 받는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유죄만 물려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부패도 물려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선택권을 갖고 있다. 그는 우리가 *천부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확증했다.

다른 한편 어거스틴은 원죄와 전적 타락과 물려받은 유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교리들을 열심히 밀고 나갔다. 논쟁의 결론은 펠라기우스는 정통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웨슬레는 그에 대한 약간의 동정을 보였을지라도 그를 거부하였다. 허나 그는 어거스틴의 교리와 병행하지도 않는다.

선행의 은총에 대한 웨슬레의 교리를 통해 중간 입장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주는 은혜는 그 인간에게 *은혜의 자유*를 준다.

구원

웨슬레의 계획 개요에서 구원은 학술적인 면에서 크리스찬 여정의 전부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구원행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결의 과정을 통해 계속된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란 언어를 사용하는데 단지 구원의 순간이나 찰나가 아니다.

칭의: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죄의식은 사라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거스려 범죄한 것에 대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

중생: 구원에 대한 웨슬레의 가장 좋아하는 말은 “신생”이다. 이 개념은 우리가 중생, 곧 “거듭나서” 그리스도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하게 확증하였다. 구원의 이 측면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한 가족 곧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 안으로 태어남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로 구원을 순전히 사적 사건 및 생활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구속: 구속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출애굽은 구속의 은유로 행사한다. 구속은 또한 새 목적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즉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들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죄로부터 사랑을 위해 구속받은 것이다.

화해: 우리는 하나님께 화해 되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외인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속으로 들어감으로 정복된다는 의미이다.

초기 성결: 이것은 구원의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우리의 죄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고 보다 깊이 우리의 의도, 우리의 의향, 우리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실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단원 3: 구약 성경 기초들

이 단원의 과제

구약 성경 읽기
설교 개요
일지 기록

학습자 목표들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믿음의 유추”에 대한 주제물을 판명하고
- “믿음의 유추”를 구약신학과 관련시키고
- 구약성경에 나온 성결의 주요 본문들을 밝히고
- 본문을 설교로 옮기는데 기초적인 것들을 밝힌다.

숙제 배당

다음의 신약 본문들을 읽고 이용이 가능하면 주석책들을 참고하라: 마 5-7; 요 17; 롬 6-8; 고린도 전서 13; 갈 5:17-24; 빌 3:12-15; 골 1:22-23; 1 살전 5:22-23; 약 1-2; 요한 1 서.

상기 신약 본문들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설교 개요를 만들라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사상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인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결의 진리가 세기들을 통해 체험되고 입증된 사실에서 그 권위를 발견하게 된다.

웨슬레식 성경 독서방법

- 본문의 앞뒤 문맥을 찾아내고 “본문 교정”을 피해야 하는 결정적 필요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 원래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 본문의 역사적 및 문화적 상황을 조사하였다.
- “믿음의 유추” - “성경의 온 취지”에서 나온 성경적 교리의 관계를 말해 준다.
- 성경의 모든 본문들에 대해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죄, 믿음에 의한 칭의, 신생, 그리고 현재의 내적 및 외적 성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무엇을 첨가해 주는가?

“거룩한” 혹은 “거룩”이란 말이 구약성경에 히브리어로 830 회 이상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말은 광채, 분리, 그리고 정결의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성결은 거룩에 대한 말의 파생어로서 가장 흔하게는 의도적인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두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 오경

창세기

- 창세기에서 인간과 죄에 대한 기초 신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립해 줄 것이다.
- 창세기는 또한 사람들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른다.
- 하나님은 계속 그의 창조물에 대한 그의 사랑에 기초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요구한다.

출애굽기

- 책 전체가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결과의 노예의 신분으로 부터의 자유 그리고 거룩한 약속의 땅을 향한 이동의 은유로 보여 진다.
- 십계명을 주심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한정 요소들을 제공해 준다.

레위기

- 17 장과 26 장 사이에서 발견되는 성결 법전
- 도덕률의 보다 깊은 의미는 20:7 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서 볼 수 있다.

신명기

- 웨마(6:4-5)로 알려진 유대인의 가장 거룩한 본문.
—레위기 19:18 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의 개념을 완성하도록 한다.
- 이 절들은 웨슬레가 성결을 사랑으로 정의하는데 그의 제일가는 원천이었다.
- 내적 씻음의 새 상징인 "마음의 할례"의 개념

역사서, 시편, 예언서

역사서

-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는 것은 영적 승리의 위대한 은유가 되었는데, 가끔 완전 성결의 체험과 동등시 되었다.
- 선택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어떻게 깨트렸는가에 대한 이야기
- 또한 의의 경건한 대항자들의 실례들로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강조되었다.

시편

- 경건성에 대한 통찰력
- 하나님과 함께 걷는자들에게 가능한 타입의 성품을 묘사해 준다.

예언서

- 이사야 6 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본문이다; 권능의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 상징: 하나님과 성결의 관계를 갖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이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는다라는 명확한 메시지
- 예레미야는 죄의 결과와 죄된 성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질 때를 소망한다.
- 에스겔은 소망의 취지를 메아리 친다.
- 요엘은 성령 강림에 대해 예언한다.

예수의 깨끗케 하는 피¹ 웨슬레 트레이시 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1:5—2:2).²

결국 노마는사임해야 했다. 구타 당한 여자들을 위한 보호소에서 간신히 1년 기관목회자로 일한 후 그녀는 그 일을 그만 두었다. 그녀는 여자들에게 사역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비록 그 썬더가 기독교 조직이 소유하고 자금을 조달했는지라도 노마가 죄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다. 부장은 거듭해서 그녀를 경고하여 “내부의 신”에 대해서만 말하도록 했다. “이 여자들은 그 자신들속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했다. “그들은 죄와 구세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노마에게 요일 1:5-2:2의 가르침은 내일의 신문처럼 때에 맞았다.

적어도 세 사상의 현대 학파가 죄의 실재를 부인한다. 노마가 위해서 일했던 부장과 같은 신시대의 경건인은 죄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정말로 변장한 신들이라고 주장한다. 인간 잠재력 운동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죄로 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죄의 개념이 불합리한 추론이 아닌 세번째 영향력 있는 그룹은 행동주의자들이다. 비에프 스킨너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인도함 받은 그들은 사람들은 단지 환경이 이루어 놓는 수동적 존재라고 선언한다. 인간이 선교사 혹은 살인자로 끝마치든지 어떤 칭찬이나 책망은 적당치 않다. “영예로운” 혹은 “죄인”과 같은 딱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를 다 썼다는데 동의한다. 스타일, 구조, 신학의 유사성들이 타당한 결론을 가져온다. 전통에 의하면 아마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을 떠난 후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에 정착하여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요한 일서는 주후 85-96년 사이의 어떤 때에 씌여졌다. 요한이 목양한 가정교회 무리들 내에서 몇개의 분파가 일어 났다. 서신은 각 교회에서 잘못을 고치고 연합을 회복하기 위해 읽혀져야 했다. 여러 내분이 신학적 및 윤리적 차이성들을 가져 왔고 무엇보다도 가장 잘못된 것은 그들이 요한 자신의 복음을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³

서신은 적어도 네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 같다. 첫째, 요한이 나의 어린 자녀들 (2:1) 이라고 말한 믿음의 정통 신자들 그룹이었다. 요한의 주의를 끈 또 다른 그룹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단적으로 예수님을 축소시키고 율법을 높이는 쪽으로 기울어 졌다. 그들을 위해 요한은 아들의 신성과 선재를 강조하였다.

세번 째 그룹은 예수님의 인간성-그의 실지 인간성-에 대한 교훈을 필요로 하였다. 그들은 이단적으로 전 이교들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들에게 육체는 악하고 중요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피흘린 희생은 그들이 다루기에 어려웠다. 네번 째 그룹은 전 노스틱 주의 크리스찬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이미 사도 요한의 교제 단체에서 떠났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요한은 관찰했다 (요일 2:19). 이 그룹은 우리의 교과에서 가장 소극적인 주목을 받는다.

구조. 이 서한의 구조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것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이해없이 그 안에 있는 본문으로부터 적당히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양학자들은 그 서한을 일종의 직선적인 연역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요로 나누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단순히 그러한 취급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논쟁은 마치 공술의 과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련의 동심원들로 묘사된다. 요한의 첫 논쟁의 원은 칭의, 성결, 사랑의 봉사, 순종, 세속에 관해 말한다. 그 다음의 원들에서 요한은 이 모든 주제들을 다시 다루지만 같은 순서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취급들은 점차 질은 강도를 보이면서 다른 각도의 접근을 보여 준다. R. R. Williams 는 요한의 구조가 "오히려 사람이 오래 된 교회"⁴의 밖을 거닐다가 그 안을 거니는 사람과 같다"고 말한다. 데이빈 잭맨은 그 구조를 나선모양의 계단의 구조로 묘사한다. "당신이 궁전이나 위엄있는 집안에 있는 중심 계단을 올라갈 때 당신은 같은 물체들이나 그림들을 다른 각도에서 가끔 새로운 인식으로 보게 된다"⁵.

이기적 구조의 결과는 사람이 한 본문을 연구해서 저자가 이 주제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을 통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한은 그 주제를 거듭 반복해서 취하는데 매번 그것을 다른 면모와 또 다른 중요한 관점들과의 다른 관계로 그것을 보여준다. 이 공부에서 취급되고 있는 본문은 이것의 실례가 된다.

본문 분석. 서한을 동심원들이 있는 과녁으로 볼 수 있게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은 빛** (5 절) 이심을 크게 뜬 눈으로 발견한다. 크게 뜬 눈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하겠지만 이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은 빛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쿨린 저술들은 빛의 주제를 사용한다. 노스틱 주의 그 자체는 "빛의 종교"임을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전 노스틱 주의 이단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그들을 반격하며 사용하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는 "그의 영광 (빛에 대한 육체적 의미) 과 그의 진리 (지적 의미) 와 그의 거룩 (도덕적 의미) 에 있어서 절대적이다"⁶. 요한은 같은 진리를 반대 형태와 반복하는데 그 안에 어두움이 전혀 없다. 혹은 문자적으로 "그 안에 어두움이 없나니 어떤 어두움도 전혀 없느니라!"⁷ 이 전제는 파괴적인 그룹에 대한 요한의 열렬한 정죄의 기초를 제고한다.

이 문제를 일으킨 초대 노스틱 주의자들이 믿는 것들의 요약은 다음의 단언들을 포함한다:
beliefs of these troublesome early Gnostics includes these affirmations:

1. 그들은 자신들이 이성 및 영적 엘리트들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을 보통 크리스찬들보다 월등하게 만드는 특별 기름부음 (*chrisma*) 을 받았다고 했다.
2. 그들은 인간 육체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은 기본적이고 수치스럽고 중요치 않았다고 믿었다.
3. 2 번의 믿음의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는 개념의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보였을 따름이었다. 유령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도세티즘 환상주의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dokein*, 곧 "...인듯 해

보인다" 에서 온 이름이다. 그들을 위해 요한은 그 서한의 바로 첫 문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것과 그가 전혀 유령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4. 몸은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은 사람이 몸으로 하는 것 (예를들면 폭음, 폭식, 간음, 술취함)은 영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자기 인식만 차리는 개념의 원인이 되었다.
5. 그들 자신의 영적 개화 때문에 그들 자신들은 그들의 행위가 어떨든지 죄성에도 죄된 행위에도 비난을 받지 않아야 했다.

여섯개의 "만일" 절들. 사도는 노스틱 주의의 분리론자들에 대한 그의 정죄를 세 쌍의 소극적 및 적극적 진술로 형성된 여섯개의 "만일" 절들로 표명했다. 각 "만일" 절들 다음에는 결과의 진술이 따른다.

소극적 죄목들

6 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요

8 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 절. 만일 우리가 범죄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적극적 단언들

7 절. 만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 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2:1.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⁸.

죽음에의 길

먼저 소극적인 죄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강도와 진지함이 나선모양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단계 1: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요 (v. 6). 단계 2: 그들은 그들의 거짓이 사실임을 자긍하면서 자신들을 **속이고** 그들은 "자신들을 타락시켰다". 그 결과는 **truth** (요한에게 "진리"는 복음을 의미한다). 그들속에 거할 곳을 발견하지 못한다 (8 절). 단계 3: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의 말씀이** 그들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10 절).

이 절들을 보다 주의깊게 살펴 보자. 6 절에서 우리는 이단의 분리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 (*koinonia*) 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삶은 죄로부터 스며나왔다. 그들의 범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의 속죄는 하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삶은 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 그의 죄 된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했다.

8 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는 것을 본다. 요한일서 기초작업 강해를 쓴 저자 비 에프 웨스트캣에 의하면 **우리는 죄가 없다** 라는 것은 죄를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죄의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 짓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여기서의 사상은 죄에 관한 것이지 죄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원천 곧 원칙들에 관한 것으로 죄의 원칙은 죄의 행위와는 구별된 것으로 그것은 상태를 묘사해 준다.”⁹

스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은 죄된 성품 혹은 기질을 소유한다는 것과 같다”.¹⁰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깨끗이 씻음받아야 될 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¹¹

10 절에서 반대자들은 죄의 행위를 범한 것으로부터 무죄하다고 선언해 왔다. 스몰리와 웨스트캣이 죄된 상태보다는 행위의 죄를 표현하기 위해 취한 복수 사용에 주목하기 보다는¹² 브라운은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해왔지만 그들이 어떤 죄책감도 부인한 것은 죄가 그들 자신들과 같이 영적으로 아주 앞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준다.¹³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못한다 (롬 3:23) 고 선언한 하나님은 사실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삶의 길

그리스도안에서의 진리, 빛, 생명의 길을 표현해 주는 세계의 “만일” 절을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위로 뻗치는 용수철과 같은 그리스도안의 진리, 빛, 그리고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빛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교제로 죄의 자백으로 움직여 나가고 죄의 깨끗게 함으로 향하여 나가고 용수철 꼭대기에 우리는 이 배려가 우리를 위함뿐만 아니라 **은 세상을 위한 것임을 (2:2)** 발견한다.

사도의 직접적인 목적은 의례적 개념을 정의하려는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구원의 계획과 상호적으로 양립되고 구원의 계획에 기초위에 서있음을 통해 요한은 신자들이 죄가 만일 그리고 어느때에 죄가 어느 때에 그[녀]의 손에서 발견될 때에 어떻게 해야되는 가에 특별히 주목한다. 이 본문은 죽음으로의 길은 죄를 부인하는 것이요; 생명으로의 길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것임을 보여준다.

7 절에서는 우리에게 **그가 빛가운데 있는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라** 고 한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것이다.¹⁴ 더 나아가서 빛가운데 행하는 것은 **서로와의 교제** (교이노이아) 이루어 놓는데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요한이 분명히 반격할 수 없는 간접적인 펀치 라인이다. 사람은 본래 빛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놓는다고 말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한 교제가 여기서 예상된 배경의 실제이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과의 영교에 대한 주제를 명확히 밝히지만 바로 영지주의의 교회분리자들은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교제는 함께 나아 간다는 진리로 힘있게 꺾 올려 놓는다.

빛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결의 정결한 빛은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보다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많은 성인들이 자신들을 죄인들의 과수로 본 이유이다. (예: 요한 웨슬레, 토마스 아퀴나스) 이 본문에서 보통 사용하는 단어(하마르티아) 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과녁을 못 맞추다 또는 짊어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그는 또한 불의 (3:4)와 의롭지 못한 (5:7)을 사용한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아들의 보혈 (7 절)는 죄로부터의 깨끗케 씻어주는 상태이다¹⁵. 요한은 그것을 우리 주님께 대해 인성과 신성의 이름들을 사용하고 그의 아들 신분과 그의 보혈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영지주의 무리들의 무언의 그리스도관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7 절과 9 절은 사람이 구주를 필요로 함을 고백한 것의 이점을 강조한다.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에서 자백이라는 말은 *homologeō*이다. 이 단어는 두 헬라어 곧 *homo*, "같은" 혹은 "비슷한,"과 *말씀*, "언설," 혹은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로고스로 부터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그 복합어는 "동의하다" 또는 "같다고 선언하다"¹⁶를 의미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우리의 "하나님과 동의"를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발견한다 (9 절)**. 헬라어로 용서하다는 "뒤에 남기다", 혹은 "버리다", 혹은 "가게 하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죄는 "반항"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얼룩"이다.¹⁷ 요한 7 절과 9 절에서 자백한 죄는 깨끗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단어 *catharsi*는 여기서 "깨끗이 씻다"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헬라어에서 온 것이다. 그 동사는 계속적인 현재 형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실된 크리스찬의 자백한 죄를 "직접 깨끗이 함"을 의미한다. 토론의 주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는가가 아니라 진실된 크리스찬이 죄에 빠져 그것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웨스트 코트가 말한대로 "문제는 *창의*가 아니라 *성결*에 관한 것이다"¹⁸ 이것은 웨스트 코트가 "크리스찬의 진보적 성결"¹⁹이라 부른 성결의 진행차원의 일부이다. 이 진행과정은 성결시키는 은혜의 순간적 체험후에도 생 전체를 통해 계속된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 절).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적당성에 대한 단언이다. 보혈은 "원죄 및 행위" 둘 다의 "모든 종류 및 모든 정도"의 죄를 깨끗케 하실 수 있다고 요한 웨슬레²⁰는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절에 그것 자체가 말하는대로 보다는 그들 자신의 전통적 죄론을 첨부하였다. 이 본문과 그의 계시의 모든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반대를 선언했을지라도 일부는 위험스럽게도 그리스도의 깨끗케 하는 피에도 불구하고 죄는 마음에 계속됨에 틀림없다고 거의 말할 지경에 이르렀다. 아담 클락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생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는 또한 그의 조물주²¹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고 기록한다.

모든 죄의 용서와 깨끗케 함에 대한 요한의 진술은 특별히 간음과 배교의 죄로부터 자유치 않고 타락인에게 오로지 한번의 두번째 기회를 주는 초대교회의 훈계에 비추어 의미심장하다.²²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함이라 (2:1). 전에 잘못 해석 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강령을 중단하고 그의 **자녀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따로 제쳐 놓는다. 그는 그들이 자기가 더 많이 죄를 짓는 교리를 인준함으로 은혜가 더욱 더 풍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는 이 주제를 3:7-9에서 더욱 강력한 언어로 다룬다. 요한은 "자연적으로 죄를 크리스찬 생활의 정상적 요소라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움추린다."²³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2:1) . 마지막 "만일"의 절은 우리 주님의 제사장적 변화역할을 언급한다. 그는 **대언자**라고 불리우는데 "우리를 위하여 청원하는 자"이다. 요한은 *parakletos*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를 의미한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언급한다; 예수님은 첫 보혜사이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2:2). **화목제물**(*hilasmos*)이란 단어의 사용은 약간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다. 헬라 문헌에서 그것은 보통 화난 신이 다정하거나 *화목*²⁴하게 되는 일종의 종교적 뇌물을 언급한다. 이것은 분명 속된 크리스찬이다. 웨스트 코트, 도드, 그리고 개역 성경은 우리에게 "속죄"를 사용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객체라기 보다는 죄를 위한 제물의 주제로 만든다. 스몰리는 이 표면상 반대적인 것을 보충적인 것들로 여기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엔아이비 성경의 "속죄 희생제물"이란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그것은 객관적 및 주관적 요소를 다 품고 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9 절).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의 미쁘심과 의로움은 사기적이거나 값싼 것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대언자를 보통 화목제물 보다 뛰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의로운 하늘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 (제물드리는 자가 아닌) 이 된 것이다. “요한은 제물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그 수단은 하나님 아들이 발견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²⁵

신학적 의미

설교학 과정에서 중대한 단계는 본문의 신학적 의미들을 확정하는 점에 있다. 요일 1:5-2:2 에 기초하여 확정될 수 있는 진리들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이 본문의 첫째이고 지배적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위한 유일한 효과적인 속죄와 치료가 된다는 것이다. 구원은 색다른 종교적 체험, 비밀의 지식, 혹은 어떤 다른 인간 자원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속죄하고 용서하고 깨끗케 하신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버려질 때들을 위해 적절한 해답이 된다. 그 해답은 두 번 더 제단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결과를 가져온 재빠른 고백이며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계속 깨끗케 하시는 것이다”.

2. 또 다른 중대한 신학적 요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하나님과 사귀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1:5)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8)는 사실에 비추어 그와 사귀을 갖는자들은 그런 같은 특성들을 반영해야 한다.
3. 거룩한 삶에 대한 요한의 이해는 칭의, 성결, 하나님과의 영적 사귀,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그리고 요한 일서의 그 나머지 부분에 기초하여 순종, 세속에 항거, 희생적 봉사를 사랑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4. 우리의 본문은 또한 모든 죄에서 깨끗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능함을 명백히 단언한다. 다른 성경구절들에서 요한은 성령을 주님과 완전한 사랑을 다룬다. 요한 웨슬레와 아담 클락과 같은 초기 감리교도들은 그 서한에서 그들의 완전 성결교리의 몇가지 측면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발견했다.

특별히 웨슬레 교리의 한 측면은 이 본문에 기초하여 확정될 수 있다. 그것은 죄의 깨끗케 됨이 매 순간 깨끗케 된다는 사실이다. 아담 클락은 “깨끗케 하다”를 “계속 깨끗케 하다”로 번역하면서 1:7 에 대해 주석한다. “인간의 영혼에 성결을 보존하는 것은 그것을 산출하는 것과 같은 공적과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그는 덧붙인다.²⁶

웨슬레의 이 구절들을 고려해 보라: “사람들 중 가장 거룩한 자도 역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는 그들에게 할가분하게 주어 버린 것이 아니라 순간 순간 주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뭉치의 성결을 주시지 않는다. 그들이 매 순간 공급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성결치 못한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²⁷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권능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에 의해 우리는 영적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그것 없이는 우리의 현재 성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순간에 악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²⁸

5. 이 본문에서 적당히 끌어낼 수 있는 다른 신학적 요점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고백하지 않은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다; (↗). 하나님과 사귀의 한 표징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사귀이다; (↘).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사람은 먼저 그[녀]가 하나님을 닮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설교 제안들

인단 본문이 철저히 조사되고 본문[과 문맥]의 신학적 의미들이 확인되면 설교를 위한 주제와 그것의 범위들이 진술되게 된다. 그 다음에 설교자는 본문의 진리들을 특별한 삶의 상황에 처한 특별한 회중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방식들을 발견해야 한다. 이런 훈련들은 전적으로 설교자에 맡겨져야 하지만 본문과 그 문맥의 가능한 설교학적 취급에 대한 일부 아이디어들은 여기에 제공되어 있다.

1. 여섯개의 “만일 절들”

여섯개의 “만일 절들”과 그것들의 “복합 결과 절”들은 자연적 설교학 구조를 형성한다. 아마 가장 훌륭한 설교학적 취급은 그것들을 세계의 적극적 -소극적 쌍을 지어 세계의 설교 시리즈로 사용할 것이다.

2. 진리의 고리들

다음의 설교 구조는 그 서신의 순환 혹은 나사 모양의 구조를 조화시킨다.

- I. *첫째의 “진리의 고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적인 것을 해 놓으셨는데, 곧 칭의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4:14)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2)

그리고 고리를 완성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4:4)

여기에 형성된 황금 진리의 띠는 심오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어떤 것을 그것이 의미하든지 그것을 칭의라 부르는 은혜의 기적을 선포한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당신의 죄를 위한 속죄물이고 화목제물이며 속죄의 희생제물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하시어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 II.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적인 것을 해 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적인 것을 해 놓으시길 원하시는데 곧 성결이다.*

이 두번째 “진리의 고리”를 고려해 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7)

“그는 미쁘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1:9).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3). 그리고 고리를 완성하려고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4:13)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기” (4:12)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새자녀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안에 거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이 진리의 고리를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며 다음의 것들을 하시고자 함을 본다.

- A. 성령께서 내주하심
- B.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심

C.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심

분명히 칭의, 중생, 그리고 양자를 통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적 성결의 초점을 강화한다.

III.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곧 희생적 섬김이다.*

진리의 이 순환의 일치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데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2:6) .

"만일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1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찌니라" (4:21).

그리고 요한 복음에서는 이렇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21)

고리를 완성하려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 3:16)

3.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 시리즈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 "빛이시다" (1:5)
-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1:9)
- "사랑이시다" (4:8)
- "영이시다" (요 4:24)
- 우리에게 의해 우리 자신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지 않고 또 재창조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것은 이 장의 이교도들이 행한 것이었다. 그들은 일종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 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많은 문장으로 시작한 자들이었다."²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피는 다음의 것들을 제공한다:

- 우리를 위한 속죄물 (2:2)
- 죄의 용서 (1:9)
- 우리의 죄된 성품을 깨끗케 함 (1:7, 9)
- 하나님과 사귄 (1:6)
- 성도들과 교제 (1:7)
- 우리를 위한 대언자 (2:1)

당신이 죄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죄는:

-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1:5, 2:4; 4:20).
- 우리의 동료 크리스찬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1:7).
- 부인함으로(1:6, 8, 10)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성격상 이중적 -행위와 상태- 이다(1:8, 10)
- 고백되어 용서받을 수 있다.
- 깨끗이 씻겨질 수 있다.

당신이 사권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사권은:

- 하나님과 갖는다 (1:5)
- 서로와 갖는다 (1:7)
- 하나님의 백성들과 갖는 교제는 하나님과 사권의 표징이다 (1:7)
- 희생적 봉사를 하고 서로 돌보게 한다. (3:16)

당신이 크리스찬의 삶속에서 죄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구원받고 성결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지을 때는 몇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 그것은 무시될 수 있고(1:6) 사람은 실지로 어두움 곧 죄가운데 행하면서 빛가운데 행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1:6)
- 그것은 그들 자신들을 아주 거룩하고 택함 받았다고 여기므로 자신들을 죄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 부인될 수 있다(1:6).
- 그것은 잘못 명칭 되어질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것을 실수, 허약성,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과실이라고 부른다.
- 그것은 하찮게 여겨질 수 있다: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다 (1:6, 8, 10).
- 그것은 고백되고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다 (1:7, 9).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 크리스찬

-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 (본성과 행위의 죄인) 임을 이해해야 한다.
-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하나님과 동의(*homologeo*) 해야 한다(1:7).
- 당신은 당신 (과 모든 사람) 이 당신의 죄들을 숨기고 (1:5-6), 당신 자신을 속이고 (8 절), 당신의 죄를 부인할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10 절).
- 당신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피-을 알아야 한다.

단원 4: 신약 성경 기초들

이 단원의 과제

신약 성경 읽기
설교 개요
일지 기록

학습자 목표들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신약 성경에 나온 기록에 대한 주요 본문들을 밝히고
- “믿음의 유추”를 신약신학과 관련시키고
- 신약 성경에 나온 성결의 개념에 대한 주요 본문들을 밝혀야 한다.

숙제 배당

요한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명백한 기사”를 읽으라.

2-3 페이지의 독후감을 쓰라. 여러분은 이 단원의 숙제를 위해 이 문서의 반절을 읽고 다음 단원을 위해 반절을 읽을 것이다. 이 단원을 위한 여러분의 숙제물은 첫 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 (이 문서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 요목 11 페이지에 나온 “추천 독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당신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사상

의, 기록, 성결 그리고 완전과 같은 주제의 해석은 우리의 신학의 완전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절충될 수 없다. 그것들은 “믿음의 유추”의 바로 핵심을 이루는 것들로 웨슬레는 그 1 차 렌즈를 통해 성경을 해석한다.

소그룹

여러분의 그룹에서 서로의 설교들을 주의해서 읽는다. 개요들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들을 적는다.

모두가 각 개요를 읽고 의견들을 말했으면 각 개요를 가지고 개요를 쓴 사람과 이야기 하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개요를 향상시키고 그 개요로 부터 설교를 쓰라.

시간을 지혜롭게 나눔으로 각 설교가 토론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개요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개요로 부터 설교 원고를 작성한다.
첫 원고 초안의 제출 마감은 단원 9 이고 최종 원고 초안의 제출마감은 단원 11 이다

웨슬레-성결의 협약

1. 크리스찬 삶은 하나님이 바로 세상 창조전에 계획하신 대로 성결을 향해 성장하는 삶이다. 웨슬레 성결 해석가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따르는데 헌신한 개인과 심지어 공동체의 삶속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의 위대한 낙관주의로 본다.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은혜와 협력할 때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고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의는 실제적인 의미이지 단지 "귀여된 의" 가 아님을 믿는다.
3. 한 때 한 초대교회교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크리스찬 생의 목표이다.
4. 성결단체 내에 서기 위해 사람은 크리스찬 삶속에서 두번째 중대한 변화를 확신해야 한다고만 말해 두자, 엄밀하게 말해서 웨슬레주의자가 되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들을 성결 전통의 일부로 밝히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결엔 동적인 요소가 있다. 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성된 사건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진행중이다.

신약 성경 개관

복음서

-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완전함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 5:48)
- 신약 성경에서 완전이라 말은 다른 방법들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좋은 번역은 어근 *telos* 에서 나온다. 이 말은 목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종점 혹은 극점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암시한다.
- 우리가 위해서 창조된 목적을 향해 움직여 나가라고 명령하신다.
- 성결하라는 부름은 사랑하라는 부름이다.
- “마음”이 모든 도덕적 혹은 윤리적 부패의 근원이 아니면 모든 선의 근원이다. 성결은 의로운 율법에 대한 외적 일치 그 이상이다.

사도행전

-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강림과 성령강림의 큰 영향을 본다.
- 우리는 우리의 성결체험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언제나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처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힘쓴다.

바울의 로마서

성결은 이 서신의 모든 섬유조직을 통해 흐른다.

1. 크리스찬 생활은 도덕률 폐기론의 삶이 아니다.
2. 단지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불순종의 선택보다 더 깊은 문제가 우리 자신안에 역사한다.
3. 우리를 구원하거나 성결케 하는데 율법의 무익.
4. 성령안에서의 생활은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승리하는 삶이다.
5. 이런 타입의 영적 생활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우리의 온 자신을 완전 결여됨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외에 아무것도 없다.

신약 성경 개관

고린도서

-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은 사랑과 의로운 삶을 위해 창조된 자들로 우리의 잠재력을 성취하자는 소망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굳어진 현실 사이의 갈등을 보여 준다.
- 바울은 너무 고상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맞지 않는 개념들을 갖고 있는 관념론자가 아니다. 아니 바울은 현실주의자로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삶을 바라보고 성결은 현실적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바울 서신들

-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과 5장에서 기술된 성령안에 사는 삶을 발견하는데 이 삶은 “육체(flesh)” *sarx* 안에 사는 삶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성결의 집합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해준다.
- 빌립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데 귀중한 책이다.
- 골로새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에 대한 바로 그 목적에 관해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진술한다 (1:22-23).
- 웨슬레 성결운동에 결정적인 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23-24에서 발견된다. 그 동사의 시제는 하나님의 성결케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및 요한 서신들

-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새 언약에 적용된 구약성경이 다수의 상징들을 발견하는데 곧, 정결, 거룩, 성결을 불러 일으킨다.
- 야고보서는 몇가지 주제들을 다룬다. 그는 유혹, 죄, 이중 마음의 성격에 대한 통찰력과 다음의 절로 요약될 수 있는 성결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 준다.
- 요한 일서는 성결신학과 사랑으로 풍만하다

단원 5: 전통: 웨슬레 이전 기초들

이 단원의 과제

“그리스도인 완전의 명백한 기사” 읽기
독후감
일지 기록

학습자 목표들

이 단원이 끝날 때 까지 학생들은

- 웨슬레 이전의 거룩과 성결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초를 놓아 준 신학운동들을 밝히고
- 교부시대부터 18 세기에 걸쳐 성결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숙제 배당

“그리스도인 완전의 명백한 기사”의 마지막 절반인 자료 5-4 를 읽으라.
지난 단원으로부터 여러분의 반응을 통합시키면서 이 작품에 대한 독후감을 4-5 페이지 쓰라.

웨슬레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는 포베 파머 저 *성결의 길*을 읽기 시작하라
(이 문서들을 입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강의 요목 11 페이지에 나온 “추천독서”를 참조하라).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회포함하라. 학과 과정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사상

성결교리가 성경적 교리임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시초부터 기독교 전통의 면직물속에 견고하게 짜여진 역사적 교리임을 안다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초대 교회

	서양	동양
언어	라틴어	헬라어
교회 센터	로마	콘스탄틴 노플(이스탄불)
사회 경제 상태	400 년대 암흑시대 돌입	암흑시대 경험치 없음
지도력	교황들-세력에 있어서 다양	감독들은 여전히 세력이 강함

1054 년에 동양과 서양 기독교는 정식으로 로마 천주교와 동양 정통주의로 갈라졌다.

명백하게 드러난 두개의 신학문제는 이전 것들이었다:

- 정교의 역할
- 서양교회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동양교회가 승인하지 아니한 니케아 신경에 추가사항

신학적 방법	교리들에 대한 합리적인 논증과 조직적인 논법을 전개함.	의식과 예배에 주의를 돌림; 금욕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음.
신학적 인간론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멸 아니면 심하게 손상시킴; 아담과 하와는 성숙인들 로 봄	인간을 아주 매우 적극적인 면에 비추어 봄. 하나님의 형상의 중대성을 강조; 아담과 하와를 어린이들로 봄
죄	용서 받아야 하는 죄의 개념. 칭의를 강조	원래 인간의 "질병"이나 탈선으로 치유되어야 함; 성결을 강조
기독교론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의 속죄에 강조를 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시함; 그의 전체 삶을 구원적인 것으로 봄.
성령론	성령의 개체성을 경시함; 신경에 근본적으로 성령을 하위에 두는 글귀를 첨가함.	성령을 인격체로 봄; 삼위일체의 계급을 원치 않음.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각 개인 위격의 독특한 기능들.	"본질적 삼위일체" -신격의 일치와 상호결합
구원론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행위. 이것은 "단독론"으로 알려짐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동적 협력. 이것은 "협력설"로 알려짐

동양과 서양

동양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다: 헤르메스의 쉐퍼드, 이레니우스, 오리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크리소스톰, 슈도-마카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 바실, 에프라임 사이러스.

서양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다: 터틀리안, 사이프리안, 제롬, 엠브로스, 어거스틴.

동양 신학자들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발견한다:

-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반복”으로 알려진 죄속론에 대한 이해
- 인간 자유 의지에 대한 강력한 교회
- 기독교 윤리와 인격 형성에 대한 굉장한 교리
- 성결과 사랑의 명확한 관계
- 마음의 정결과 완전한 대한 기대 가운데 성령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강조

아마 웨슬레와 그의 신학 후계자들이 동양의 기독교 신학 양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가 쉬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조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고 그의 위대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될 수 있다.

동양의 자료들에 대한 웨슬레의 독서: 웨슬레가 그의 감리교 추종자들에게 새 피조물과 성결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그 앞에 살아 나아오는 것을 본 낙관주의였다. 성결운동은 다음 세기에서 보다 더 열띤 낙관주의가 된다.

서양 중세기 영향

클레어바의 버나드 (- 1153)

버나드는 새 시토 수도회의 창시자였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묘사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개개인에 대해 갖고 계신 사랑의 깊이를 칭송한다.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토마스는 우리의 미덕의 성향은 완전히 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죄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웨슬레 자신의 이해에 종대하다. 토마스로부터 웨슬레는 또한 선행의 은혜의 교리와 의지적인 행위의 죄와 완전의 의미에 대해 통찰력을 얻는다.

개혁 이후의 카톨릭 신비주의

프랜코이스 디 세일즈 (1567-1622)

프랜코이스 페넬론 (1651-1715)

마담 가이온 (1648-1717)

신비주의자들로부터 웨슬레는 내적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완전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의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은혜나 기도 그리고 고독의 구체적인 방법을 그의 자신의 이해에 짜 넣었다.

개혁 경건주의

조한 안트 (1555-1621)

필립 스펜너 (1635-1705)

경건주의는 경건 행위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종교적 삶의 내적 체험에 근거를 두었다.

단원 6: 전통: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단원의 과제

“그리스도인 완전의 명백한 기사” 읽기
4- 5 페이지의 과제물
성결의 길 읽기
일지 기록

학습자 목표들

이 단원이 끝날 때 까지 학생들은

-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한 웨슬레의 결론들을 밝히고
- 웨슬레 사상의 발전적 성격을 이해하고
- 다음의 용어들에 대한 웨슬레의 정의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성결; *via salutis*; 의도의 정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숙제

포베 파머가 쓴 *성결의 길* 읽는 것을 마치고 이 책에 대한 서평을 4 페이지 쓰라 (이 문서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 요목 11 페이지에 있는 “추천 도서”를 참조하라).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사상

첫째,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며 확신이다. 둘째, 하나님이 이행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며 확신이다. 셋째,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하실 수 있고 기꺼이 하시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며 확신이다. 그런데 왜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에게 한 순간이 천년과 같지 않은가? 그는 그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원하실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가 영예롭게 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의 가치와 적합성을 원하시거나 기다리실 수 없다: 이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성결시킬 수 있으며 또 기꺼이 원하시며 한가지 더 첨가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와 확신이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당신은 당신 모습 그대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당신 모습 그대로하면 그것을 지금 기대하라...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라; 그것을 당신 모습 그대로 기대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금 기대하라. 그것들 중 하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들 모두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들 모두를 허용하는 것이다.³⁰

웨슬레의 오직 믿음

“웨슬레의 기독교 생활 윤리의 재건은 개신교의 은혜의 윤리와 천주교의 성결의 윤리를 원형 그대로 독특하게 종합한 것이다.”³¹

쥘리 크롭트 셀

성결은 경건인이 추구하는 것의 일부가 되어 왔다.

마틴 루터의 안건의 일부는 “오직 믿음”으로 알려진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곧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이다.”³²

요한 웨슬레: 기독교 생활 곧 성결을 겨냥하고 오직 믿음을 확장하는것인데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만 성결될 수 있다..

요한 웨슬레 자신의 생활 안건은 옥스포드 성결 클럽에서 생겨났다. 성결의 추구는 항상 가난한 자와 핍절한 자를 향한 사회적 행동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개인의 경건과 연구만이 아니다.

웨슬레의 오직 믿음

1738 년 이전

영향

- 토마스 아 켐피스 (1379-1471),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 제레미 테일러 (1686-1761), *거룩한 생사의 규칙과 시행*
- 윌리엄 로 (1686-1761)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거룩한 생활에의 심각한 부름*

이 세분의 “실천 신비주의자들”로 부터

1.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마음의 의도를 정화시킨다.
2.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은 거룩한 삶에 중요하다.
3.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거룩한 삶의 결정적이고도 표준적인 것이다.

1741

그리스도인의 완전

- 소극적인 면으로 웨슬레는 크리스찬들이 성숙하지만 절대 완전 이를테면 전지, 무 오류, 전능과 같은 하나님의 특성들에는 이를 수 없다고 믿는다.

적극적인 면으로 웨슬레는 심지어 새로 태어난 크리스찬들이라도 외적 죄를 범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주장했다; 보다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악한 생각들과 내적 성질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

1761

완전에 대하여

-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사랑은 내적 및 외적 거룩을 완전케 한다.

현재 완전 성결의 체험의 가능성에 그의 믿음과 그 전후의 점차적인 성장과 진보적인 성결에 대한 힘찬 강조를 통합하고 균형있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다름 아닌 완전한 사랑인데, 그것은 마음에 풍성하고 그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깨끗케 한다.

성결 혹은 완전한 사랑이 크리스찬에게 들어오는 방편을 순간적이고도 점차적인 사건으로 본다.

1766 년의 웨슬레

1766 년에 웨슬레 목사는 그가 1725 년부터 1765 년에 이르러 믿고 가르쳐 왔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분명한 기사” 를 출판했다.

1. 완전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거듭해서 언급되어 있다.
2. 그것은 칭의 만큼 이른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칭의의 사람들은 “완전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히 6:1).
3. 그것은 죽음 만큼 늦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바울은 완전하게 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빌 3:15).
4. 그것은 절대적이 아니다. 절대적 완전은 사람에게도 아니고 천사들에게도 아니며 하나님께만 속한다.
5. 그것은 사람을 무오류하게 만들지 않는다. 몸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오류가 없지 않을 수 없다.
6. 그것은 죄가 없는 상태인가? 그 용어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7. 그것은 “완전한 사랑” (요일 4:18) 이다. 이것은 그것의 본질이다. 그것의 재산들, 혹은 떨 수 없는 열매들은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살전 5:16)
8. 그것은 향상될 수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드러 누워있거나 증진할 수 없게 되기는 커녕 사랑에 완전해진 사람은 그전보다 은혜안에서 더 신속히 성장할 수 있다.
9. 타락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우리는 것에 대한 수많은 실례들을 갖고 있다.
10. 그것 전후에 부단한 점차적인 작업이 있다.
11. 그러나 그것 자체는 순간적인가? 혹은 아닌가?... 사람이 죽을 때 순간을 감지한다는 것은 가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 그런데 언제고 죄가 중지되면 그 존재의 마지막 순간과 그것으로 부터 우리의 구원의 첫 순간이 있음에 틀림없다.

소그룹들

여러분의 그룹에서 웨슬레가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명백한 기사”를 읽고 각각 쓴 독후감들을 읽는다.

독후감을 논평하고 토론한다. 서로 자기들이 진술한 것에 대해 변호할 수 있도록 도전한다.

적어도 여러분 중의 3 명이 동의하고 이 작품의 주된 의의가 있는 세개의 주요 진술/아이디어를 적는다. 클래스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단원 7: 전통: 성결운동

이 단원의 과제

성결의 방법 읽기
독후감
일지 기록

학습자 목표들

이 단원이 끝날 때 까지 학생들은

- 미국 성결운동의 뿌리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운동의 중요한 인물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19 세기 성결교단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웨슬레 신학과 미국 부흥운동을 명확히 종합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운동과 사회 개혁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숙제 배당

여러분의 설교 원고를 완전히 작성하라. 첫 원고 초안 마감은 단원 9 를 공부할 때 까지이다.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성결운동

나중에 미국 성결운동으로 알려진 것의 시초는 감리교내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강력한 강조로 착수되었다.

학자들은 디모데 메릿이 편집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지침서”를 시작한데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성결운동의 전에 아주 중요하였다.

그것의 신학은 요한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와 미국의 부흥운동을 독특하게 종합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19세기 동안 미국은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열띤 낙관주의를 입증해 주는데 그것은 오로지 은혜에 대한 기독교 관점을 고수하는 자들의 생각에서 더 해갔다. 유토피아적 이념의 형태는 또한 이런 사회구조의 특징이다. 미국 꿈의 개념들, 곧 미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미국 국경의 소망, 이모든 것이 미국 신학에 영향을 미쳤다. 감리교는 완전히 이런 형태의 낙관주의를 받아 들였다.

중요 인물들과 장소

포베 파머

아주 개인적인 잔혹한 비극들, 곧 세 자녀들의 죽음은 1837년에 신앙 체험 (완전 성결)을 하게 했는데 그것은 포베 파머로 하여금 신앙 직업에 들어가게 했고 차례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운동을 시작했고, 오늘날 그녀를 그들의 교모라 여기는 여러 교단들을 탄생케했다.

- 그녀의 집에서 가진 유명한 “화요일 모임”을 인도했는데 가끔 성결운동의 탄생지라고 여겨졌다.
- 많은 책과 소책자를 썼다.
- 세기의 가장 영향력을 미친 성결잡지를 편집하였다.
- 도시 중심의 선교를 시작했다.
- 감리교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 부흥운동가였다.

1. 완전 성결을 추구하는 자는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
2. 그 다음에 그[녀]는 “제단이 그 선물을 성결케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3. 개인은 그 체험을 증거해야 한다.

중요 인물과 장소들

오벌린 대학

19 세기의 부흥 칼빈주의는 오하이오에 있는 오벌린 대학에서 전통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를 만났다.

그것의 사회적 안건과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위대한 부흥운동가이자 조직 신학교수인 찰스 피니와 마한과 같은 칼빈주의자들은 미국과 캐나다와 대영제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부흥운동 주제인 완전 성결에 주의를 기울였다.

완전성결은 중생 이후 두번째 위기의 체험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웨슬레 양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원죄를 “근절하거나” 혹은 “육성”과 “죄로 기울어지는 것”을 소멸시킴으로서 완전히 성결된 사람으로 성결의 삶 혹은 고결한 삶에 의미심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체험이다.

피니와 같은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와 감리교 사이의 필요한 관계를 거절하고 “신신학” 혹은 “신 칼빈주의” 로 알려진 칼빈주의와 성결을 새로 종합하여 전파하기시작했다.

케스윅과 진압론

결국 영국 케스윅 장소 때문에 알려지게 된 신학자세의 첫 대회가 1873 년에 열렸다. 1875 년에 이 대회는 그의 성공회 신부의 초청으로 케스윅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것의 역사적 및 신학적 의의는 19 세기 후기의 감리교 연루 교회들이 주장한 완전성결 교리의 재 해석과 그 관계에서 발견된다.

웨슬레 교도들과 같이 칼빈주의의 케스윅 교도들은 완전 헌신의 특유의 순간을 강조하였지만 그들은 옛 성품의 힘이 씻겨져 버린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임재로 *반격을 당한다*는 그들의 믿음에서 달랐다.

그 운동은 디 엘 무디와 빌리 그래함 부흥운동,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위튼 대학, 달라스 신학교와 연관이 되었다.

신학 및 교회 발전

이 새로운 미국 문화를 배경으로 웨슬레의 성결교리는 몇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재교정되었다.

1. 성결신학과 부흥운동의 혼합은 완전 성결의 순간성에 대한 강조에서 명확히 보여 졌다.
2. 운동은 또한 완전 성결과 “성령 세례”의 관계를 받아 들이는데 있어 웨슬레를 완화시켰다.
3. 완전성결과 성령세례를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그 교리를 신약성경의 오순절 이미지와 연결시킨 것이다.
4. 성결을 오순절의 능력과 연결짓는 것은 세례 용어를 사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5. 마침내 웨슬레가 그것을 이해한 것 처럼 19 세기의 성결교리의 형태는 정상에 이른 것과는 아주 멀리 완전 성결을 새 시작으로 강조했다.
6. 성결운동은 또한 사회 개혁과 직접 연결되었다: 노예제도 폐지, 극기, 투표권, 여자 안수등과 연관되었다.

다음은 기독교 성결 연맹에 가입한 주요 자매교단이다.

- 그리스도 형제교회
- 기독교 연합 그리스도 교회
- 하나님의 교회 (앤더슨, 인디애나)
- 회중 감리교회
-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
- 북미 복음주의 교회
- 복음주의 친우 동맹교회
- 복음주의 감리교회
- 자유 감리교회
- 나사렛 교회
- 수구파 감리교회
- 구세군
- 웨슬레 교회

성결 교단들

자유 감리교회는 1860년에 조직되었다. “자유”란 말은 그 당시의 두 중대한 문제에 대한 자세들을 의미했다: 노예 제도를 확실히 반대했다. 무료 좌석을 요구했고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 좌석을 파는 아이디어를 거부하였다.

웨슬레 교회는 또한 노예 폐지론과 그 개혁에 그 뿌리를 두었다; 그것은 본래 웨슬레 감리교파라고 불리웠고 1840년대 초기에 조직되었다.

윌리엄과 캐터린 부쓰가 창설한 구세군은 가난한 자를 돕도록 디자인된 성결 교리와 사회 개혁에 대한 교단의 헌신은 명확하였다.

하나님의 교회 (앤더슨)는 명확한 성결의 메시지 외에 교단의 초기 전제들 중 하나는 반 교파, 반 교단의 자세였다.

나사렛 교회는 성결 교단 중 가장 큰 교단이다. 피니 브리스는 로스엔젤레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결과 관련된 선교를 돕는데 임명받기를 원했던 감리교 목사였다. 그의 감독이 성결 요소에 대해 아주 역겨워하고 임명하기를 거절했을 때 브리스는 그의 목사직에서 떠났다. 1895년에 그는 나사렛교회라는 이름의 그룹을 시작했다. 나사렛 교인들은 가난하고 버림 받은 자들에게 헌신했다. 그러나 브리스는 또한 완전 성결교리를 대단히 강조하였다.

단원 8: 합리론: 완전 성결의 본질

이 단원의 과제

일지 기록

학습자 목표들

이 단원이 끝날 때 까지 학생들은

- 철학의 영향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정의한다.
- 다음의 관점들, 곧 존재 목적, 목적론적, 상관론적 관점에서 성결을 관찰한다.
- 성결의 본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묘사한다.

숙제 배당

여러분의 두 개요들 중 하나에 기초하여 완전한 설교 원고의 첫 초안을 완성하라. 두 사본을 클래스에 가져 오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사상

[경건된] 사랑은 매 새로운 순간처럼 새롭다.

완전 성결

정의:

완전 성결은 중생 이후의 두 번째 그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체험인데 그 체험에서 하나님은 “육성” 혹은 “죄의 경향성”을 다루시므로 완전히 성결된 사람으로 하여금 성결과 사랑의 삶 곧 승리의 고결한 삶 속에서 의미심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한다.

철학

플라톤: 완전은 절대적 선 곧 하나님을 의미했다. 인간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리스토 텔레스:

어떤 것-혹은 어떤 사람-은 그것 (그분)의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면 완전해 질 수 있다.

웨슬레는 어떤 점들에있어서는 플라톤적이지만 그는 완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리스토 텔레스적이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성결 낙관주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함을 믿는다. 그러나 그 과업은 결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존재론적, 목적론적, 그리고 상관론적

존재론적 효과

“존재에 대한 연구”

-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과 관계에서?
- 성결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웨슬레 성결신학은 하나님은 정말로 성결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혹은 보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의 성품을 새롭게 하심을 확증한다.

죄는 인간상태의 이탈 곧 대단한 기형이다. 죄를 짓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 만이 아니다. 죄는 우리를 우리의 인간성으로 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그것에 보다 더 가깝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적 변화시키심과 우리의 성품의 회복을 통해 참으로 인간이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창조된대로 다 되는 것인데 곧 거룩하고 온전한 우리 자신들이다.

목적론적 효과

헬라어 *telos*

- “완전”-정상 의미에서 완성 혹은 충만, 성숙
- “끝”- 때, 상황 혹은 성품의 완성
- “의도한 목적”-운명의 의미

하나님의 성결케 하는 은혜에 자신들이 영향을 받도록 허용하는 자들은 그들이 의도한 운명과 일치한다.

상관론적 효과

삼위일체의 성격을 띠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계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죄는 이 관계들이 일그러진 것이라면 성결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목적 뿐만 아니라 또한 바로 우리의 관계의 역량의 회복을 의미한다

성결신학의 문제들

1. 우리의 성결교리를 “삼위일체”를 만드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21 세기로 들어가면서 아주 분명했던 교회에서의 신학적 다양성에 비추어 신학자들은 모든 다른 신학해석을 위한 기초로서 삼위일체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원과 성결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가능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끄는 -선행의-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시는 값없는 선물들에 우리가 반응하고 사유할 때 성령에 의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그 결과 똑같은 성령의 은혜를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다.

2. 상관론적 관점은 “지위의” 성결을 의미하는가?

웨슬레의 재발견은 성결 신학의 상관론적 동력을 재 발견한 것을 의미한다. 복음주의가 점차적으로 근본주의와 같아지는 시대에 우리의 웨슬레 성결 정체를 고수할 어떤 기회가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전통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지위의 성결은 가끔 칼빈주의 혹은 케스웁의 성결에 대한 이해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의 귀여를 통해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웨슬레-성결 사상은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는데 은혜의 내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실지로 의롭게 만드신다.

3. “근절” 이란 말은 아직도 유효한가?

그 말의 주요 문제는 그것의 잘못된 의미들이다. 그것은 분명히 은유이다. 어떤 것을 근절하는 것은뿌리를 뽑아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죄를 본체 곧 우리에게서 제거되는 어떤 것으로 개념화하게 되었다.

깨끗케 씻음의 은유가 사용된다면 역시 아마 의학적 의미로 마치 상처가 완전히 씻겨 나가지만 염증이 다시 생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과 같다.

성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죄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단원 9: 체험: 완전 성결의 구조

이 단원의 과제

설교—첫 초안
일지 기록
장장, 2005-2009

학습자 목표들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그들 자신의 성결체험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완전 성결 체험의 “구조”를 정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체험을 추구하는 자에게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성결되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 성결의 진행과 위기의 기대들을 구별해야 한다.
- “순간”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숙제 배당

“성결케 하는 은혜 안에 성장”과 영성에 관해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하여 3 페이지의 수필을 쓰라.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단원 때 클래스에 여러분의 일지들을 가져와 이 마줄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얻은 일부 생각 (깨달음)과 통찰력을 나누도록 하라.

중심 사상

완전 성결체험은 각 개인과 같이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분명 완전 성결의 명료도를 계속 동적이고, 관계적이며, 현실적이 되게하고 사람에 따라 차이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해야 하지만 완전성결의 사건과 진보적 성결의 과정을 혼합하여 단일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를 성결교회가 의미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은혜의 수단”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를 재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성결케 하는 역사를 균형있고 건전하게 전파하는데 절대 중요하다.

우리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대조시킨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끔 해로운 것이 된다. 물론 체험 그 자체의 특징들이 있지만 한 사람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을 요구함은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고 틀에 맞지 않는 것을 비판하도록 하는 표준을 세워 놓는 것이다.

교단의 독특성

완전 성결은 중생 다음에 온다.

완전 성결은 우리를 악한 행위에서 자유케 한다.

완전 성결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특징이 있다.

완전 성결은 순종과 사랑의 결과를 가져 온다.

완전 성결은 제거되고 주어지는 요소를 갖고 있다.

완전 성결은 오로지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완전 성결 다음에는 - 보통 - 성령의 증거가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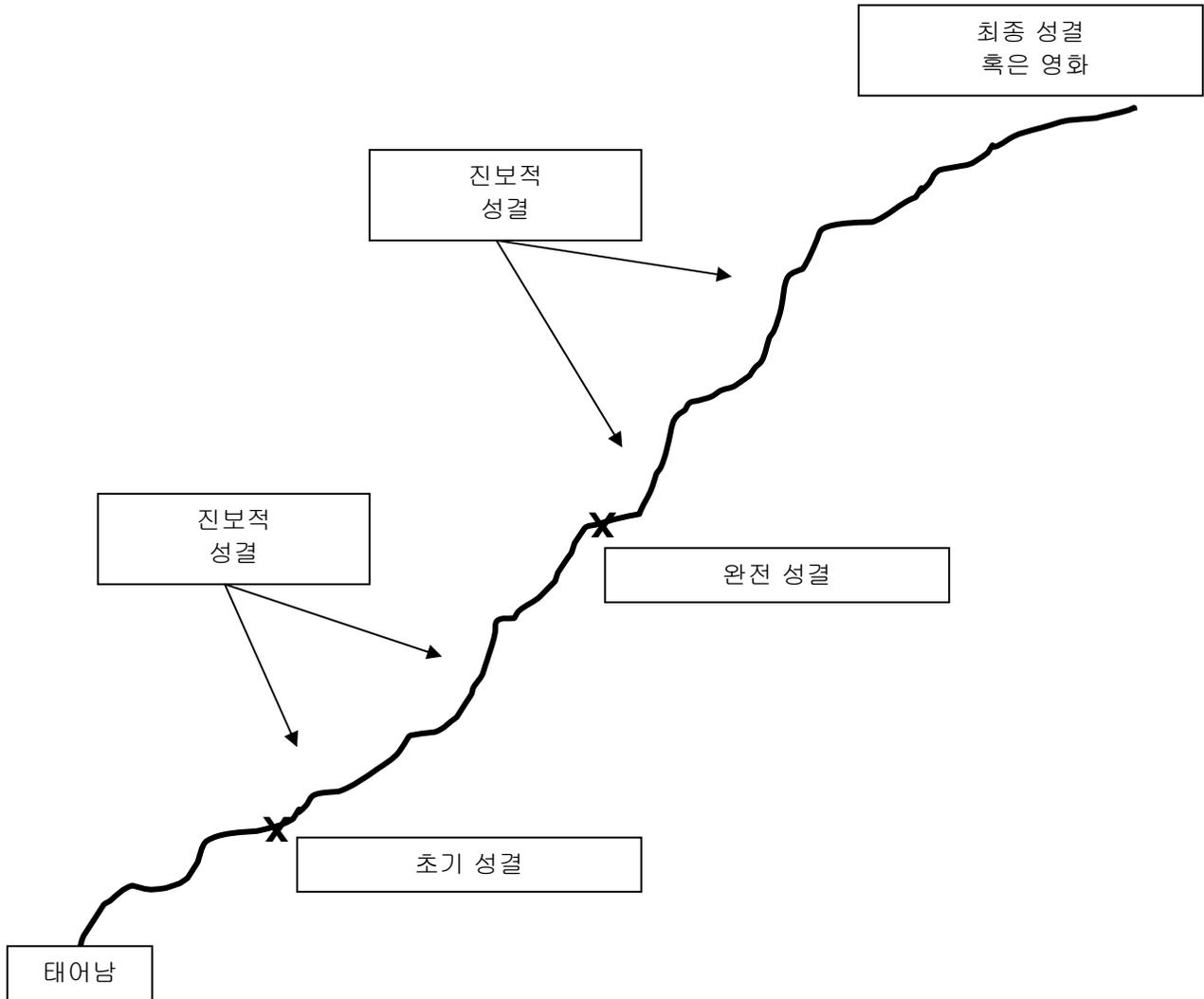
완전 성결을 묘사하기 위해 몇가지 은유적 표현이 사용될 수있다

완전 성결은 의도적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계속 이어지는 성장을 요구한다.

이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성장이다.

체형의 구조

이것은 *ordo salutis*, 혹은 구원의 순서라 불리운 것을 묘사한다. 일부 웨슬레 학자들은 *via salutis* 혹은 구원의 방법을 더 좋아한다.



경고 사항들

19 세기의 이 새로운 신앙 부흥운동은 “취하는 자”에게 지금 가능한 구원과 완전 성결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체험을 발견하게 했지만 조만간 그것이 진리로 동결된 것 처럼 성결이 방법의 그 모델을 고쳐서 응결시켜야 할 위험성이 또한 존재함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완전 성결교리를 상자속에 두어도 안되며 우리의 정의된 한계 밖에 어떤 것이든 의심스럽다는 관념을 보급시켜서도 안된다.

- 어떤 분들에게 그 체험은 속삭임과 같이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번개와 같이 요란하다.
- 어떤 분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순종의 다음 단계를 요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영혼의 쓰라림이다.
- 어떤 분에게 그것은 크리스찬 삶가운데 일찍 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추구한지 수년간 후에 올 수 있다.
- 어떤 분들에게 그것은 성결 전파의 응답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것의 설명을 결코 들어 보지도 못한채 하나님의 인도로 체험에 이를 수 있다.

완전 성결체험은 각 개인과 같이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원 10: 체험: 목적을 위한 수단

이 단원의 과제

수필
일지 기록
간행물

학습자 목표들

-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웨슬레교의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판명한다.
 - 영적 단련, 은혜안에 성장, 진보적 - 점차적 - 성결 그리고 영성의 의미와 목적을 명백히 이해한다.

숙제 배당

장정 문단 33-41 의 그리스도인 행위의 언약에 대해 읽고 검토해 본다. 두 페이지의 반응을 쓴다.

가장 좋아하는 웨슬레의 인용을 택하고 그것이 왜 여러분에게 감명 깊었는지를 쓴다.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el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사상

구원하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 중이다.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혜의 착수에 협력하는 우리의 의지를 허용하는 모델을 제공해 왔다. 그렇다면 진보적인 성결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중대하다; 그 진행 과정은 헌신의 주요한 순간들에 뒤 따르는 중대한 절차이다. 은혜의 수단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는 인생 여정에 결코 중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해짐을 목표 삼는다.

은혜의 수단

크리스찬이 성장하는 방법 곧 진보적 성결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의 바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에 대한 그의 개념이다.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은혜의 수단”에 의해 나는 하나님이 제정한 외적 표현, 말, 행동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행, 칭의, 성결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보통 통로가 된다고 이해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방법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고 했다.

웨슬레가 어떤 활동들을 정한 세가지 범주가 있다.

- “일반적” 은혜의 수단이 있다.
- “제정된” 은혜의 수단이 있다.
- “신중한” 은혜의 수단이 있다.

영적 형상

“‘영적 형상’이란 어구는 갈라디아서 4:19 에서 나오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썼다. 바울은 ‘morphoo’ (형상)— ‘metamorphoo’ (변형)—과 밀접한 관련된 말 – 사용하는데 그것은 단지 회형이 아닌 본질적 성품을 말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의 내적 성품이 아닌 본질적 성품이 아주 그리스도와 같이 되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안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구주도 아닌 단지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행위를 가져야 했다”.³²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자들의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 단련된 삶의 스타일로 반영되고 우리의
세상에서 구원하는 행동으로 입증된다.”³³

성결의 성찬식

“주의 만찬은 ‘성결의 규례’로 하나님의 능력부여와 교제, 확증, 양육하는 은혜의 연속성과 필수성과 유용성의 표식이다. 우리의 삶속에서 그러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행위의 도구들에 의해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고 성결된다.”³⁴

윌리엄 워리몬

세례는 성찬식의 시작인고로 그 다음에 반복되지 않지만 성결의 성찬식은 세례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듭해서 기념되어야 한다.³⁵

랍 스테이플

웨슬레의 안목에 성찬식은 영혼이 특유하게 자양분을 받는 수단이다. 이것은 웨슬레가 성찬 요소들의 화체설을 믿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추억을 포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다”

단원 11: 체험: 성결윤리

이 단원의 과제

2 페이지 숙제
웨슬레 인용
일지 기록

학습자 목표들

이 단원들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개인의 성결과 사회의 성결,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연결성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웨슬레의 말로 “감정”과 “기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과 같은 악용들을 판명하고 신학적으로 고칠 수 있어야 한다.
- 그리스도인 행위의 언약과 성결신학을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숙제 배당

여러분의 개요에 기초한 성결 설교의 완전한 최종 원고와 여러분의 그전 초안에 대한 동료 및 교사의 서평을 끝마치도록 하라.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el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사상

개인의 성결에 웨슬레가 끈질기게 초점을 둔 모든 측면은 그 개인을 그[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랑의 대항자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성품과 미덕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실재에 있어서 네 “원인”이 있다고 믿었다.

- “물질적 원인”은 왜 어떤 것은 그것이 하는 것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묻는다” 의 경향성에서 발견된다고 믿었다.
- “능률적 원인”
- “형태적 원인”이다. 이것은 의자를 의자로 만들며 집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 실재의 “궁극적 원인”은 그것의 목적 혹은 그것의 *telos* 를 결정한다. 그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믿었다

행복이나 성취는 오로지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할 때 온다.

잠재적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이 긴장에서 나오는 네 타입의 성품.

- “악한” 성품-그[녀]가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가책도 없이 달리 행하기를 선택한다.
- “자제심이 없는” 성품-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 그것을 행하는 것을 택하지만 다음에 끝까지 행하지 못한다.
- “자제하는” 성품-선을 알고 선을 행하지만 오직 의무에서 한다.
- 참 “미덕”의 성품- 선을 알고 미덕 그 자체를 위해서 선을 행한다.

기질과 애정

내적 변화는 소위 웨슬레가 "애정"이라 부르는 것의 변화이다. 가장 간단히 말해서 "애정"은 의지와 감정을 한데 모으는 점이다. 애정은 모든 인간의 행동 밑에 놓인 불가결한 동기부여의 경향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에 의해 행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들 그 이상의 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와 협력함으로써 애정은 인내의 "기질"로 습관들여 질 수 있고 또 습관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행동들이 뒤따르는 이 선한 "기질"에서 나온다. 우리 안에서 개발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주요한 기질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함으로 혹은 더 적절하게 말해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변화됨으로 우리는 삶속에서 정결함 받은 마음으로부터 외적 행동을 하게 된다. 성결은 그것의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랑의 잠재력의 실현이다.

극단을 피함

도덕주의 혹은 율법주의

-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면에만 치우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 사이의 중대한 균형을 잃는다.
- 그러면 성결은 규정된 도덕 목록에 의해 정의된다.

도덕률 폐기론

은혜는 값싼 것이 된다.

그런데 웨슬레 성결 윤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주어진 순간에 그들 자신의 인간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다음의 것들을 통해서이다.

- 긍휼의 행동--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봄
- 사회부정을 바로 잡음 -인간 고통 저면에 깔린 압제의 구조를 다룸
- 복음 전도—하나님의 사랑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전파함으로 절망속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줌

“요한 웨슬레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삶에 옮겨진 “성결”과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과거일 뿐만 아니고 만일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된다—단지 우리의 “독특성” 만 아니고 우리의 “지향성”이 된다.

단원 12: 21 세기를 위한 성결

이 단원의 과제

최종 설교 초안

일지 기록

학습자 목표들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웨슬레에 대한 19 세기의 논쟁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 현 시대에서 성결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성결의 언어의 적응성들에 대한 제안을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숙제 배당

마음과 삶의 성결을 실생활화 하라.

중심 사상

만일 우리가 “거룩” 혹은 “성결”-웨슬레와 그의 후계자들이 충실히 전파했다고 우리가 믿는 것-로 알려진 것의 실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넘겨 주어야 하는 중대한 멧세지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도전이다: 우리가 다음 세기에서 성결교리를 명확히 말하려고 시도하면서 윤리성, 비전, 그리고 독특한 영성을 되찾고 재창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 신학자나 한 설교가 혹은 한 교사를 위한 과업이 아니다.

“성결의 기이함: 19 세기 성결에 대한 관점의 끊임없는 관련성”으로부터의 인용

더글라스 스트롱

칼빈주의의 기독교 개혁이 초기 미국 종교내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감리교는 초기 공화민의 지배적인 영성에 관련하여 신학 침해자로 여겨졌다. 흥미롭게도 이 칼빈주의의 비판은 20 세기 후반부 역사가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 났는데 자칭 정통 복음주의 수호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역력히 보였는데 그들 중 거의 모두가 칼빈주의 혹은 칼빈주의적으로 기울어진 침례교 전통들 출신이었고 그들은 웨슬레교를 신학적으로 위험스런 것으로 보았다.

이 새로운 복음주의 역사가들은 19 세기 미국 종교역사를 근본적으로 광신적 감정주의, 반지성주의 그리고 행위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19 세기가 일부 종교 역사가들이 불렀듯이 “감리교 세기”였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이 정확히 19 세기의 문제였다고 믿는다.

비록 이 일반적인 20 세기 후기의 침례교화 된 새 복음주의는 전혀 신학적으로 웨슬레 멧세지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었는데도 많은 성결교회들이 그것의 모두를 감싸는 우산 밑에서 동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성결교회들은 갑자기 발전하는 미국 새 복음주의의 번창에 기쁘게 참여하였다. 아이로닉하게 성결교회들은 오랫동안 문화적 적응에 저항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이제 오늘날의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소비자 중심주의와 완전히 사상을 같이 해 왔다. 20 세기 후기의 성결교회들은 그들의 19 세기의 뿌리들을 잊어 버렸던 것 같다. 그들 중 많은 – 숫자적으로 번창했지만 그들의 짠 맛이 없는 – 교회가 주로 그들의 독특성을 잃었다. 이것은 아마 키이쓰 드러리가 성결운동은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가 주목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죽은 것은 대중적 수준에서 그것은 그것 자체의 것 대신에 칼빈주의의 새 복음주의 관점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²⁹

19 세기의 문제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낙관주의는 인간의 총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게 했다; 결단주의는 펠라기우스 교로 인도할 수 있었다. 체험의 즉시성은 감정적 열광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 도덕적 열성은 율법주의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괄적 교제는 파벌의 분리주의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칭찬할만한 특색들을 추켜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쓸모있는 과거에 대한 나의 탐색에서 나는 우리를 위해 가치가 있는 19 세기 영성의 특징있는 표식 혹은 특색들을 식별하려고 힘 써 왔다. 단순히 특별한 교리적 강조보다는 오히려 성결한 남자와 여자들은 윤리성, 비전, 독특한 영성을 나타냈다.³⁷

각주

-
- ¹ Wesley D. Tracy, "The Cleansing Blood of Jesus," in *Biblical Resources for Holiness Preaching: from Text to Sermon, Vol. 2*, eds. H. Ray Dunning and Neil B. Wisema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0-1993), 259-71. Reprinted by permission.
 - ² Unless otherwise indicated, Scripture quotes in this chapter are from the NKJV.
 - ³ For a study of the passages in John's Gospel that were being misinterpreted see Raymond E. Brown, *The Epistles of John* in *The Anchor Bible*, eds. William F. Albright and David M. Freedman (Garden City, NY: Doubleday and Company, 1982), 232-43.
 - ⁴ R. R. Williams, *The Letters of John and James* in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eds. P. R. Ackroyd, A. R. C. Leany, and J. W. Pack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19.
 - ⁵ R. R. Williams, *The Letters of John and James* in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eds. P. R. Ackroyd, A. R. C. Leany, and J. W. Pack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19.
 - ⁶ Jackman, *John's Letters*, 28.
 - ⁷ Jackman, *John's Letters*, 28.
 - ⁸ Smalley arranges the positive and negative "if" and "consequential" clauses in this manner (p. 24). See also Raymond E. Brown's presentation of these declarations as protases and compound apodoses. *Anchor Bible*, 231-37.
 - ⁹ Jackman, *John's Letters*, 28.
 - ¹⁰ Jackman, *John's Letters*, 28.
 - ¹¹ Jackman, *John's Letters*, 28.
 - ¹² Jackman, *John's Letters*, 28.
 - ¹³ Jackman, *John's Letters*, 28.
 - ¹⁴ Smalley, *1, 2, 3 John*, 23.
 - ¹⁵ Smalley, *1, 2, 3 John*, 23.
 - ¹⁶ Earl F. Palmer, *1, 2, 3 John, Revelation* in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ed. Lloyd J. Ogilvie (Waco, TX: Word Books, 1982), 12:31-32.
 - ¹⁷ Smalley, *1, 2, 3 John*, 23.
 - ¹⁸ Smalley, *1, 2, 3 John*, 23.
 - ¹⁹ Smalley, *1, 2, 3 John*, 23.
 - ²⁰ Smalley, *1, 2, 3 John*, 23.
 - ²¹ Smalley, *1, 2, 3 John*, 23.
 - ²² Smalley, *1, 2, 3 John*, 23.
 - ²³ Smalley, *1, 2, 3 John*, 23.
 - ²⁴ Smalley, *1, 2, 3 John*, 23.
 - ²⁵ Smalley, *1, 2, 3 John*, 23.
 - ²⁶ Smalley, *1, 2, 3 John*, 23.
 - ²⁷ *Works*, 6:52-53.
 - ²⁸ Jackman, *John's Letters*, 26.
 - ²⁹ Douglas M. Strong, "Sanctified Eccentricity: Continuing Relevance of the Nineteenth-Century Holiness Paradig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5 (2000), 11-12.